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현불회·구독신청 02-2004-8212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16일)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조계종은 11월 4일 총본산 조계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를 위한 추모위령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6명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극락왕생 발원"…불교 '이태원 참사' 상처 보듬다

조계종, 11월 4일 희생자 추모 위령법회 봉행

글=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들에게 제불보살님의 보살핌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때 이른 추위 속 시린 바람이 비통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다. 이태원 참사 6일 후인 11월 4일. 묵직한 타종소리가 침묵에 잠긴 조계사를 일깨웠다. 경내에 운집한 500여명의 스님과 대중들은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영가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의식은 우리 사회를 위로하는 치유의 손길로 화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는 굳건한 발원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참석해 영단에 헌화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이날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행한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를 위한 추모위령법회'는 참사 희생자 156명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시에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상실감을 위로하는 치유의 법석이기도 했다.

위령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주요 종정기관장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 전국비구니회, 조계사, 봉은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다.

명종 타종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참석대중들은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에 앞서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애도의 심경은 헌화와 분향으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영가단에 헌화했고, 종회의장 정문 · 호계원장 보광 · 포교원장 범해 ·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초격 ·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분향으로 애도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짧은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둘씩 밝혀질 때마다 슬픔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간다"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킬 수 있었던 생명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으며 물질적 이익보다는 생명과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확고한 의식이 바로서야 한다"며 "추모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다짐이라는 당부다.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화를 하고 있다.

진우 스님 "사회안전망 구축" 당부
윤석열 대통령 내외 참석해 '애도'
인묵 스님 집전으로 위령의식 엄수
500여 사부대중 참석해 영가 추모
조계사, 희생 영가 49재 봉행키로

이어 진우 스님은 "불교계는 한량없는 책임감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 이웃들이 함께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모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의 가늠할 수 없는 슬픔에 마음이 먹먹하기만 하다. 그 어떤 말로도 슬픔을 대신할 길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저와 정부는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있게 사고를 수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슬픔과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주시는 불교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위령의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하는 가운데 20여 분간 엄수됐다. 의식이 이어지는 동안 참석자들은 합장으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일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영가들이 두려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부처님 자비광명에 안기어 극락세계로 길 떠나길 기도한다"며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이 참담함을 딛고 일어나서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다독이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이날 위령법회를 시작으로 매주 사시기도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를 위한 49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재는 11월 11일, 삼재는 11월 18일, 사재 11월 25일, 오재 12월 2일, 육재 12월 9일, 칠채(49재)는 12월 16일 봉행된다. 〈관련기사 2면〉

꽃보다 예쁜 딸 죽음 슬퍼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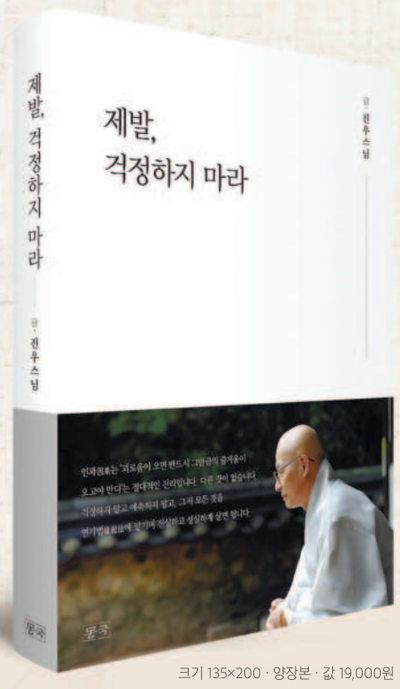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며–

청천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찌 경제대국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서 155명의 청춘이 피지 못하고 한 순간에 꺾이는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꽃보다 예쁜 내 딸아
오늘은 하늘도 울고, 바람도 울고, 온 국민들이 너희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세상에 피었다가 바로 지는 꽃이 있더냐?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짧았구나.
백합꽃보다 순결하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장미꽃보다 더 예쁜 너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보배를 얻은 양 마냥 자랑스러웠다.
아침에 고운 옷을 골라 입고 밝은 웃음을 보내며 "시월의 마지막 밤을 즐겁게 보내고 오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하고 떠난 네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구나.
아까운 내 딸의 청춘아
아비가 네가 간 길을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천 번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니다. 거짓이다. 꿈이다.
극락조가 허공 속으로 영영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오손도손 이야기 하냐.
사랑하는 딸아, 정녕 너는 가을 낙엽보다도 먼저 아비를 남겨두고 떠나갔구나.
슬프구나. 온 국민들은 너희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못해줘서 변을 당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미안하다. 죄송하다."하며 애통해 하고 있다.
꽃보다 예쁘고 사랑스런 딸아,
그래 잘 가거라. 슬픔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두 손을 합장하여 "원왕생 원왕생" 불러본다.

김형중(시인, 문학평론가)

제발,
걱정하지 마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전하는
희망과 용기의 법문!



크기 135×200 · 양장본 · 값 19,000원

괴로움이 오면
반드시 그만큼의 즐거움이 오고야 만다.

오랜 수행과 전법으로 이뤄진 깨달음이 푸근한 말투로, 은은한 미소로 손 내미는 책!!
불교의 핵심이자 행복의 비결인 '인과因果'의 도리로 전하는 진우스님의 지혜.

"헐떡거리고 비풀어지는 건 항상 우리 마음일 뿐, 실상實相은 언제나 평온하고 반듯하니
제발,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평정하게 다스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연기법緣起法에 맡기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인과를 굳게 믿고, 스스로 마음의 평정하게 다스리며 대자유를 누리십시오."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진우스님의 지혜를 법보시하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도서출판 동국

불교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물결 확산

특별취재팀

10월 30일 조계종 등 종단 애도문 사노위, 가장 먼저 현장 찾아 추모
종단 수장들 서울시청 분향소 조문
조계종, 전국 사찰에 현수막 게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불교계의 애도 행렬이 한 주 내내 이어졌다. 사고 직후 각 종단과 단체들이 잇달아 애도문을 발표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으며,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각 사찰에서도 추모법석이 잇따라 열렸다. 일부 사찰은 예정된 행사나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키로 결정하는 등 애도물결에 마음을 보태기도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30일 애도문을 발표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와 예방을 강조했다. 특히 "하늘 위 하늘 아래, 생명보다 존귀한 가치는 없기에 더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종단은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11월 1일 전국 일선사찰에 애도현수막이 게재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천태종(총무원장 무원)과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관음종(총무원장 법명)도 잇따라 애도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이 같은 비극과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총지종은 10월 31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월초 불공을 비롯한 모든 공식 불공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식 왕생성불을 서원 사항으로 추가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30여 불교종단이 소속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도 10월 31일 "10월 29일 핼러윈 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참사 트라우마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 등 불교계 단체들도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나흘째인 11월 1일 오전 11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참사 현장과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스님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10월 31일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사노위 스님 10여 명은 기도회를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과 부상당한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스님들은 추모기도회 후 흰 국화를 들고 압사 사고가 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앞으로 이동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이어갔으며 헌화로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다시 한 번 발원했다.

참사 발생 나흘째인 11월 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종단 지도자들은 먼저 일반 관례에 따라 헌화와 묵념하고 기도를 올렸다. 진우 스님은 이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10월 31일 경주 남산 열암곡 일원에서 열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고불식' 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11월 3일에는 종단협 소속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 서울시청광장 분향소를 찾아 헌향과 헌화로 희생자들을 추모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맞춰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11월 5일 전국적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기후위기 걷기명상' 을 잠정 취소했다. BBS불교방송이 11월 2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가무천년대축제' 와 부산BBS불교방송 개국 27주년 특별기획 및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축제도 논의 끝에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3일 종로구민회관서 개최하기로 했던 '2022슈퍼스타 종로' 행사를 잠정연기했다.

이밖에 광주동구불교연합회(회장 중현, 증심사 주지)는 10월 30일 광주 문빈정사 광장에서 국민행복 무등산 산신대제를 추모행사 성격으로 개최했으며, 사람과사회적경제도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22자비와나눔행 문화축제' 를 3대 종교 추모행사로 축소 진행했다.

조계종,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

11월 2일 인경 · 선의 스님 수상
수진 스님 "종단 위해 노력을"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서봉)은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 을 개최했다. 비구 수석합격자는 통도사 포교국장 인경 스님이, 비구니 수석합격자는 칠보사 주지 선의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사진〉

인경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2003년 사미계를, 200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WISE캠퍼스를 졸업했다. 선의 스님은 해득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사미니계를, 200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시상을 진행한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두 스님의 모습과 삶이 종단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된다. 앞으로도 부단한 정진을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차담에서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수석합격자인 만큼 도반, 후배 스님들에게 귀감이 돼야 하고 선배에게는 든든한 후배 스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구 수석합격자 인경 스님은 "통도사라는 큰 절에서 어른 스님들 모시고 사는 복덕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종단과 불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비구니 수석합격자 선의 스님은 "지난해 은사 스님이 원적하셨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은사 스님께서 힘을 내라고 선물을 주신 것 같다.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108명 스님에 종사·명덕 법계 품서

법계위원회, 11월 2일 조계사서



조계종이 승랍 30년 이상 스님에게 부여하는 종사 · 명덕 법계를 108명 스님에게 품서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1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사 · 명덕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사법계를 받는 49명의 비구스님과 명덕 법계를 받은 59명의 비구니스님에게는 이를 상징하는 21조 가사와 법계증이 각각 수여됐다.〈사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할 때의 간절한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불조의 법등을 계승하는 일에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하라"며 "또 아래로는 큰 자비심을 발하여 고통 받고 상처 입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행복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이날 법계품서자들에게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군대사(逸群大士)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종사 · 명덕 법계는 종단의 지도자 역량을 갖춘 수행자임을 인정받는 공적인 자리이자, 불교의 수승함을 알리는 중요한 소임을 부여받는 자리"라며 "삭발염의로 출가할 당시의 초심을 다시금 세워 후학을 바르게 안내하고, 참된 진리를 사회에 전하는 한국불교의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만당 스님과 지일 스님이 각각 종사와 명덕품서자를 대표로 법계증을 받았으며, 도림 스님과 지오 스님이 대표로 21조 가사를 수지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내년 예산 814억원 편성

동결 기조 속 일부 조정
종회, 11월9일 심의의결

조계종이 불기 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일반 · 특별회계 예산안을 814억여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4% 증액, 특별회계는 7.85% 감액하는 등 일부 조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1일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밝혔다. 예산안은 각 부서별 협의 및 보고절차를 거쳐 10월 28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11월 1일 제36차 종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됐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는 283억여원으로, 올해 대비 4억166여만원이 증액됐다. 법인분담금과 문화재관람료, 미수분담금은 동결편성됐으며 중앙분담금과 직할분담근, 특별분담금은 일부 조정됐다. 또 직영분담금은 전년도 내비 5%로 수준인 약 3억원이 증액됐다. 또 일반회계 세부항목 가운데 백년대계본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65.44%(1억582만여원)가 증액됐는데, 이는 37대 집행부 종책과제인 명상힐링사업 등을 비롯한 조직변화를 염두한 편성이다.

특별회계는 531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45억여원이 감액된 것으로, 백만원력결집 불자 가운데 세종 광제사 및 전통문화체험관 건입사업 종료에 따른 세출 감소로 인한 것이다. 내년도 특별회계에는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에 약 51억원, 전법회관 건립예산으로 약 5억2000만원,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6억 3000만원이,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예산으로 5억여원이 편성됐다.

예산안은 11월 9일 제22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한국 천주교 교단에 드리는 입장문

서소문 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해인도(법계도)" 나전칠화를 철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근 불교계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정부예산으로 건립운영하는 서소문 역사박물관과 여주의 옹청박물관, 한국천주교가 바티칸에 기증하여 바티칸 우르바노 대학 로비에 대형 나전칠화가 걸려있는데, 그 작품의 중심에 불교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해인도"가 십자가에 연결된 묵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천주교는 그 이유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한국순교자 124위 시복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인도"는 신라의 고승 의상스님이 화엄경의 이치를 도형으로 창안하여 표현한 한국불교의 역작으로서 모든 불자들의 신앙적 귀의를 받고 있는 불교의 성보(聖寶)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의 성보이자, 불교교리와 가치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해인도" 도형이 십자가의 묵주로 변형되어 천주교의 목적에 왜곡되게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겸하여 우리 불교계는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불교의 사찰(경기도 "천진암" "주어사")에 대해서도 그 역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왜곡하여 천주교의 성지로만 둔갑시키는 일련의 '종교역사왜곡 공정'에 대해서도 개탄하며, 그 역사를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서소문 일대의 역사적 의미와 유적을 천주교 순교역사의 성지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 천주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물론 불교의 역사와 사상까지 천주교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왜곡된 '종교역사 공정'으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는 말을 한국 천주교와 우리 모두 다함께 성찰해 보자는 제의를 드리면서,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한국천주교는 불교 상징인 해인도(법계도)를 표절하여 왜곡 사용하는 작품을 즉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소문역사박물관, 여주 옹청박물관, 바티칸 우르바노 대학)
2. 천진암, 주어사, 서소문 역사공원 등의 천주교 성지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역사왜곡을 인정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천주교의 종교역사공정은 종교간의 평화와 국민화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천주교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종교역사공정을 멈추고 종교화합과 국민화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후에 전개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한국 천주교 측에 있음을 밝히며, 한국 천주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불기2566(2022)년 10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선암사, 송광사, 대흥사, 관음사, 선운사, 봉선사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10월 3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을 열암곡 일원에서 봉행했다. 사진은 고불식 직후 주요 내외빈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첫발 내딛다

10월 31일 남산 열암곡서 고불식
'바로 모시기' 서원 부처님께 알려
진우 스님 "천년 세워 불교중흥"
정부부처·지자체 등 협조 약속해
종정예하, 불국사 등 기금 전달도

경주 남산=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열암곡)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천년을 세워 그 공덕으로 개인들은 서원을 성취하고 나라는 부강한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며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입니다."

지난 2007년 엎어진 채로 발견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는 오롯한 서원이 경주 남산 열암곡 일원에 울려퍼졌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10월 3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을 열암곡 일원에서 봉행했다.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고불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을 비롯한 경북 5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영경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천년을 세워 불교중흥·국운창성 기틀"

고불식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마애불 앞에서 108배를 하며 부처님을 바로 모시지 못했음을 참회하고, 부처님을 바로 세워 불교중흥을 이룰 것을 기원했다.

이어진 고불식에서 진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고, 불교중흥과 국운창성의 기틀을 만드는 불사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 이곳 경주 남산에는 천년을 쓰러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한 사부대중의 간곡한 원력이 모였다"면서 "지금 이 자리, 간절한 서원으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천년을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 원력은 진실한 언어로 부처님 법을 전해 불교중흥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굳은 서원"이라며 "이 마음은 국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국운창성을 이루겠다는 진솔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교육원장 당시 백만원력불사 동참을 위해 열암곡을 찾은 후 마애불 바로 세우기에 대한 원력을 갖게 됐다"고 술회한 진우 스님은 "만약 서양에서 예수의 성상이나 십자가가 누워있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며 "이것은 불제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며, 문화유산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국격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님은 "여기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찬란했던 천년 신라를 세우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서 국운창성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마애부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주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예산이 문제라면 조계종에서도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지자체, 마애불 입불 협조 약속

고불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지자체 수장들의 정책적 지원 약속도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축사에서 "8세기 후반경 조성된 열암곡 마애불상은 1550년경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으로 인해서 전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발견 이후 경주시에서는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존 정비 방안을 마련했으며, 작년 10월 경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하며 "현재 용역을 통해 마애불상을 어디에 세울지 연구 중에 있다. 불교계와 학계 등과 협력해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상철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1000년의 세월 동안 묻혀 계셨던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서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가 부처님의 가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제1 정책 과제인 만큼 문체부에서도 국민과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다. 이번 불사가 한국불교 중흥과 대한민국의 중흥이 이뤄지는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안형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 청장은 "원만한 모습으로 2007년 우리 앞에 오신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문화재청은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마애불 입불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열암곡 마애불이 세계가 함께하는 인류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부대중, 부처님 바로 모시기 '한마음'

이날 고불식에서 참석 사부대중은 열암곡 마애불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 불국사와 낙산사는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 기금으로 각각 1억 원을 쾌척했다. 고불식에 앞서 이뤄진 진우 스님의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예방에서 대종사는 금일봉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은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일어나면 어리석은 중생은 무지와 착각에서 깨어나니 이는 한국불교가 중흥하는 바로 세움"이라며 "온 우주법계 광명이 충만하니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국운이 융성하며 고통과 차별없는 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금강산 왕래길,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민추본, 11월 1일 금강산 순례길 세미나

"금강산 평화순례길은 우리 선조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곳으로, 특히 유네스코 유산이 강조하는 역사 및 종교 혼합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남북 평화순례길을 복원,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협력 공간을 구축하길 기대합니다."

금강산 왕래길의 가치를 활용, 남북 평화순례길을 복원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는 11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록으로 보는 금강산 옛길과 남북 평화순례의 길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사진>는 '남북 평화순례길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금강산 남북 왕래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과 효과 측면을 분석했다.

허 교수는 금강산 남북 왕래길을 평화순례길 관점에서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설악산-금강산 불교유산 평화순례길 △양구 펀치볼-금강산 전쟁유산 평화순례길 △철원-금강산 관광유산 평화순례길이 그것이다.

과거 신라시대부터 동쪽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불교유산이 발전했고 대표적으로 설악산 신흥사와 금강산 신계사, 주요 거점 사찰 간 성지순례길이 존재했음을 강조한 허 교수는 "사찰 성지 순례길



을 통해 주요 스님들은 불교의 가치를 전파하고 지역 평화안착 활동을 지속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전쟁 시기 양구군 심곡사와 북한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는 남북 간 고지점령을 위해 많은 희생이 발생했던 곳이고 철원의 경우 최초 전기철도가 건설된 지역으로 철도관광산업이 본격화된 지역이기도 해 의미가 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가 절대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허 교수는 "우리 조상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남북 간 종교적·평화적·경제적 가치를 활용, 남북 평화순례길을 복원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협력 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사는 '금강산 옛길에서 만난 양구·인재 지역의 사지 현황과 활용'에서 정밀학술조사 진행을 통한 사지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밝히는 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유근자 동국대 초빙교수는 '금강산 유점사 53점 순례길의 의미와 현재적 모색'을 통해 불교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순례길의 탄생을 염원했다.

임은호 기자

장애인이 가기 좋은 사찰 어디일까

보리수아래, 90여 개 사찰 조사
장애인 직접 살핀 편의시설 담아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가 장애인 이용 환경이 좋은 사찰 정보를 담은 자료집 '이 절에 가면 이만큼 되어 있어요'를 발간했다.

'이 절에 가면~'은 보리수아래가 3월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이 가기 좋은절 조사연구의 결과물이다.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전국 90여개 사찰을 방문, 각종 편의시설을 직접 경험하고 정리했다. 사찰은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포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료집은 출입구 경사로와 도움벨,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 점자촉지도, 엘



리베이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완비된 사찰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접 사찰을 방문해 사찰의 편의시설을 살펴봄으로써 법적 기준보다는 실제 느끼는 체감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해 눈길을 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사찰의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고하고 사회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사찰환경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사찰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황금법당 수국사 템플스테이

스님과 함께 정진하는 참선 템플라이프

당신은 지금 행복 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가 한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셨을 질문들...
이번 "사대부중과 함께하는 참선을 통해 답을 찾아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프로그램 일정

시작시간	일정명
08:00~08:00	요가
08:30~09:30	참선정진
09:00~10:00	참선지도
10:00~11:30	사시예불(법당)
11:30~12:00	점심공양(공양간)
13:00~15:00	걷기참선(서오릉)
15:00~15:00	회향

황금 템플스테이 (당일형)

다양하게 체험하고 황금 힐링하세요.
어디서? 수국사 황금 템플스테이!
언제?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때!
바쁘다는 핑계로 흐지부지 하루하루,
또 한달 한달 지나가고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다보니
지치고 힘들어 잠시 쉬어 가고 싶을 때!
일상 속의 스트레스, 피로를 비우고 싶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하실 때!
참 좋은 인연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 (1박2일)

코로나로 힘들었던 일상~~!!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입니다.
복잡한 도심속을 주말(토,일)에 잠시 들러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문의 서울특별시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Email : suguksa@templestay.com ☎ (02)356-2001 Fax (02)359-6297

‘청년에 희망을’ 문경명상마을서 힐링캠프

10월 28~30일 성황리에 열려

100여 청년 참가, 명상-요가 등
마가 스님 자존감 상승 수행 강연
각산 스님 호흡명상 실참 지도도
신현국 문경시장도 정치역정 고뇌
청년들에게 털어놓고 격려 메시지

문경=노덕현 기자


문경세계명상마을은 10월 28~30일 청년캠프를 진행했다.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청년명상힐링캠프가 문경 희양산 자락에서 열렸다.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은 10월 28~30일 ‘청년이여 비상하라’는 주제로 청년명상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힐링캠프에는 100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첫날인 28일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캠프의 막이 올랐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과 비베카 킴 인도 비베카난다요가대 한국지부 대표의 요가 체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이자 세계명상마을 선원장인 각산 스님의 명상지도, 청춘토크 등이 진행됐다.

청년들에게 호흡명상을 지도한 선원장 각산 스님은 “프랑스 떼제공동체, 플럼빌리지 등에서는 수행, 명상을 통한 내면의 재발견을 할 수 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에서도 청년들이 사자처럼 당당한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을 치유, 자유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청강연을 진행한 마가 스님도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어려운 일을 떠올리면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며 “오늘 문경에 오는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난 것을 보았다. 사고현장을 보며 살아있음, 건강함에 감사함을 느꼈다. 평소에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그 순간의 집중으로 건강함을 느끼며 마음속의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에서는 함성 지르기와 함께, 마주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절을 하고, 칭찬의 덕담을 전하는 등 유대관계 속에 마음을 치유하는 자리가 형성됐다. 다소 서먹했던 분위기도 대화를 통해 사라지고, 매 강연마다 참여열기는 높아졌다.

첫날 저녁 8시경 팀토크 전에는 신현국 문경시장도 캠프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경험담을 털어놨다.

신 시장은 “7번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4번을 낙선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최악의 경우인 ‘죽음’과 비교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이라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턱하고 손을 놓길 바란다. 엉덩방아를 찧어도 괜찮더라”며 힘을 불어넣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종교를 떠나 마음 치유, 자아 발견의 장이 열린 것에 기뻐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기 전 청년들은 내면 탐색과 마음 수행법 등에 대한 참여동기를 미리 밝힌 바 있다.

가톨릭 신자인 강정인 씨(35)는 “숨겨진 자아를 찾고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캠프를 찾았다”며 “평소 관심이 높았던 명상과 요가 등을 배울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시흥에서 온 김다현 씨(22)도 “불교명상을 떠나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였다”며 “낯선 친구들을 공통된 관심사에서 만나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받으며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자는 아니지만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동경 씨(28)는 “여러가지 명상과 불교수행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문경 명상마을이라는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도 있다. 많은 이들이 명상마을을 찾아 치유의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행불선원장 월호스님의 강연과 채희걸 세계선무도총연맹이사의 선무도 교육, 종소리 명상체험과 숲속걷기명상, 밤하늘별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명상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내면 수행법으로 각광받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며 “명상을 통해 청년들을 비롯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어 명상의 근본인 불교가르침에 담긴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갈등 사회 해결은 풍요 아닌 평등”

화쟁위, 11월 1일 ‘화쟁의 힘’ 집담회



“갈등과 대립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풍요가 아닌 평등에서 나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 스님)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화쟁의 힘’을 주제로 11월 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사진〉은 ‘화목한 사회는 가능하다’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불평등이 없으면 혐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담회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담회에서 김 소장은 먼저 차별과 혐오의 정의와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적 혐오는 강자들의 감정임을 강조한 김 소장은 “불평등이 없으면 혐오 감정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극소수의 독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재산이 나머지 99%가 가진 재산의 2배가 넘는다. 세계 최상위 부자 2000여 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의 60%인 49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

김 소장은 “화목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며 개인의 생존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가 형성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회복하고 연대의식을 함양해야한다”면서 “사회적 과제로는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인 황도근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교수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우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조했다. 화쟁을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보다 애정과 위로가 먼저임을 강조한 황 교수는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황 교수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욕망과 구조적 욕심에서 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분별과 욕망의 마음을 본인이 알아차림해서 개개인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야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 앞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화쟁위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잘 정리했을 때, 불자들이 관점을 갖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 불자들이 불교적 관점에서 입장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가 사회 책임…행복공동체 만들자”

불교 등 3대 종교, 11월 3일 사회적경제 문화축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와 사람과사회적경제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22자비와나눔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당초 이날 행사는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계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일선 사업 활성화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추모행사 성격으로 변경, 진행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태원 참사로 생을 달리한 영가 앞에 추모의 국화 한 송이를 올린다”며 “다함께 추모의 시간을 갖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실현을 통해 상생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종교는 ‘경제위기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을 통해 “자비와 나눔,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가치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행사 중에는 사회 공동선 실천을 위해 앞장서는 우수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불교에서는 ‘지구사랑작은실천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혜눌 스님이 종교최고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개신교에서는 한국교회언론협동조합 상임이사 박진석 목사가 상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 나누며하나되기, 임진각서 통일문화제 성료

10월 28일, ‘개성, 문 두드리다’
지관차법 시연 · 천태차 들차회
가수 변진섭 · 성악그룹 공연도



천태종은 10월 28일 임진각에서 통일문화제를 개최했다.

통일 안보관장지인 파주 임진각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무원)과 (사)나누며하나되기는 10월 28일 임진각 망배단 및 팔각정에서 ‘개성, 문(門)을 두드리다’를 주제로 통일문화제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가슴에서 용솟음치는 민족통일의 열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의 논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는 상생과 공존의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통일문화제는 민족통일을 향한 불자들의 소원이 부단한 정진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절인연이 어려울수록 굽힘없이 나아가는 대승 보살의 원력으로 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지관차법 시연 △2부 임진각 통일 문화제-개성, 문을 두드리다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관차법 시연’은 한국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 1055~1101) 스님의 열반 921주기를 추모하며 서울 관문사 다도회 회원들이 한국 전통 선차를 계승하고 중흥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지관차법을 시연했다.

통일문화제는 성의신 마하연실내국악단장의 해금 연주로 막이 올랐다. 성악그룹 칸투스와 가수 변진섭의 열창은 가을밤 임진각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퍼뜨렸다. 이어 전 출연진들이 ‘우리의 소원 통일’을 합창하며 이날 통일문화제는 막을 내렸다.

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개성 사진전’과 ‘천태차 들차회’가 열렸다. ‘개성 사진전’에는 남 · 북이 처음으로 힘을 모아 복원한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의 진행 과정과 개성 일대의 문화유적을 담은 사진 120여 점이 전시됐다. 또 서울 관문사 · 서울 삼룡사 · 군포 상락사 다도회가 참여하는 ‘천태차 들차회’가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차를 제공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불심(佛心)에 의지해 우리사회 호법신장이 되겠다"고 서원한 경찰청 불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11월 3일 경찰청 남관에 위치한 불교회 법당 '수심원'에 모인 회원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佛心 의지처 삼아 우리사회 호법신장 발원"

창립 30주년 맞은 경찰청 불교회

1989년 창립한 연꽃모임 모태
1992년 법당 개원으로 공식화
불교계 원력에 불상 탱화 봉안
2009년 지하서 2층으로 이운

2006년부터 매월 봉축 주간엔
경찰청서 총무원장 초청 법회
경승 스님들 릴레이 법문으로
불자직원들 신심 고취·활력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주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초청해 봉축대법회를 봉행하는 직장직능 신행단체가 있다. 직업별, 직군별 수많은 불자회 중에서도 흔치 않는 일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이곳에서 활동하는 직원불자모임 '경찰청 불교회'가 그 주인공이다. "불심(佛心)에 의지해 우리사회 호법신장이 되겠다"고 서원한 불자들의 모임, 경찰청 불교회가 올 10월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11월 3일 경찰청 남관에 위치한 불교회 법당 '수심원(修心院)'을 찾았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남관 2층 법당 '수심원'에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진다. 경찰청 불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여는 정기법회는 직장 업무 중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법문을 듣는 법석이다. 점심시간을 할애해 모이는 만큼, 참여하는 회원들의 신심도 남다르다는 평가다.

매주 열리는 법회지만 이날은 좀더 특별하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경찰청 불교회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한 후, 처음으로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법석이기 때문이다.

뿌듯한 마음으로 밝은 웃음이 오가야 하지만, 정작 회원들은 마음 한켠 무거움을 떨칠 수 없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물결이 경찰청 내에도 묵직하게 스며있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참담한 사고를 마주한 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지도법사로 나선 선업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이 회원들의 심경을 들여다본 듯 법문에 앞서 짧게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메시지를 전했고, 회원들은 합장으로 부처님전에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경찰청 불교회는 1989년 치안본부 연꽃모임으로 첫 발을 디뎠다. 당시 이재열 총경을 회장으로, 회원 208명이 모여 매주 목요일 저녁 정기법회를 했다. 창립 전부터 마음을 내어 직장 내 신행동호회 형태의 모임을 한 십수명 선배회원들이 구심점이 됐다. 법당 공간은 있었지만 부처님 사진 한 장이 다였던 시절이다. 당시 총무소임을 봤던 홍명희 씨는 "역시 사람이 모이니 신심도 더 깊어지고 많은 활동들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산악회와 서예, 합창단 등 소모임까지 이어졌다. 특히 산악회는 전국의 명산을 돌며 그 속에 깃든 사찰을 참배하는 등 성지순례의 형태로도 활성화됐다.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덕분에 1992년에는 남관 지하에 부처님을 모시고 공식적인 법당이 문을 열었다. 화담 스님이 불상을, 대우 스님이 불단을, 흥선 스님이 후불탱화 점안을 위해 마음을 내는 등 불교계 원력으로 여법한 법당이 탄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오신날 대법회를 봉행한 것이 2006년부터다. 2008년 경찰청장의 종교편향 논란으로 열리지 못하는 등 곡절도 겪었지만, 2009년 다시 재개되면서 경찰청 불교회가 정부와 불교계 간 가교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2009년에는 남관 2층 현재의 공간으로 법당을 이전했다. 조계종 포교원 스님들과 경승 스님들이 새롭게 거듭난 법당을 위해 원력을 보탰고, 2010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으로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원법회'를 여는 등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이후 매년 봉축대법회는 대사회적 의미를 담은 뜻깊은 법석으로 거듭났다. 2013년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봉행됐고, 2014년에는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과 희생자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법회로 열리기도 했다. 이후 지속됐던 봉축대법회는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하고 점등식으로 개최됐다.

코로나 기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회원들이 참여가 저조해 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유은실 총무는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문화가 워낙 확대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저조해 30주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대적 변화로 과거에 비해 활동이 일견 위축돼 보이더라도 불교회를 지탱하는 신념은 그대로다. 직장생활 속 부처님 가르침에 기대는 그 시간이 일상에 활력을 주고 또다시 국민과 우리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 길민성 부회장은 "경찰들은 전입전출 시에도 전국 경찰청에 불교회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매주 한번 법당을 찾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시간은 업무는 물론, 살아가는데 큰 위안과 활력이 된다"고 말했다.

김준영 불교회장도 "범죄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공부가 필수"라며 "코로나로 중단됐던 법회가 2년만에 재개된 덕분에 경찰청 불자들이 매주 수심원에서 경승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닦아 나가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가장 어둡고 힘든 곳을 향해 정법을 비추는 경찰청. 불심(佛心)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청 불교회가 이 시대를 맑히는 호법신장이 되길 발원해 본다.



1989년 불교회 모태가 된 연꽃모임 창립법회.



2002년 수심원에서 10주년을 기념하는 회원들.


11월 3일 법회활동중인 회원들. 사진=박재완 기자


10월 27일 조계사서 열린 30주년 기념법회.

2022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PAL GWAN HOE Millennium Buddhist Culture Festival
신라때부터 이어 온 천년의 불교문화 축제

2022
팔관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Turn Toward Busan

전 세계인이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UN기념공원을 향해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를 위한 추모 묵념을 1분간 진행하는 행사.

턴 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

호국불교의 상징인 팔관회 행사를 맞아 '턴 투워드 부산' 행사에 부산지역 전 사찰이 동참하여 신성한 불음佛音으로 고통 받는 중생의 번뇌를 벗게 하고 모든 중생의 영혼을 구제하는 범종을 울림으로써 순국선열의 왕생극락 발원.

일 시 2022년 11월 11일 오전11시
장 소 부산지역 전 사찰
동참방법 해당 시간에 범종 등을 1분 동안 11타 하고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 등 추모행사 진행
휴대전화 등으로 행사장면 녹화 후 부산불교연합회로 영상 전달
영상전달 방법 이메일 : story12311@nate.com (제목에 지역, 사찰명 표기)
문 의 : ☎ 051-867-0501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채널 YouTube
BBATV 바로가기 QR코드

주최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2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www.palgwanhoe.or.kr

범어사, 개산 1344주년…의상대사 기려

기증전시 및 자선음악회 등 문화제
불교문화 향유·자비나눔의 장으로
어린이합창단 창단기념 정기 공연
이태원 참사 추모음악회로 변경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가 10월 28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344주년 금정총림 범어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방장 지유 스님 법문하는 모습.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10월 28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344주년 금정총림 범어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요식에서 범어사는 개산조인 의상대사에게 차와 향을 올리고 개산 1344주년을 기념했으며 이어 개산대재 문화제를 개최해 기증전시 및 자선 신도 음악회, 민화전시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산대재문화제는 불자 및 시민들과 불교전통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소외이웃을 위한 보시 나눔의 장으로 회향해 의미를 더했다.

법요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요식은 △육법공양 △명종5타 △삼귀의 △반야심경 △헌향 및 헌다 △헌화 및 내빈소개 △의상대사 행장소개 △봉행사 △인사말 △축사 △법어 △축가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의상대사는 우리나라에 화엄십찰을 세우고 〈화엄경〉을 설하셨다. 범어사는 화엄의 가르침을 잇고 있는 사찰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범어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 화엄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의 불성을 일깨우고자 한 도량이자 동시대에 원효대사를 비롯한 여러 큰스님들이 선불장으로 삼으셨던 곳"이라며 "오늘 개산대재는 의상대사의 창건이념을 새기고 범어사가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다시금 후대에 온전히 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범어사 사부대중 모두는 다음 시대를 이어갈 정신을 계승하고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의상대사는 625년 진골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644년 황복사에서 출가해 당나라 양주에서 유학했다. 중국 화엄종 2대 조사인 지엄 스님 문하에서 화엄학을 8년 동안 수학했으며, 7언 30구 210자로 화엄사상의 핵심을 도인으로 나타낸 화엄일승법계도를 제작했다. 이후 678년 왕명에 따라 범어사를 창건했으며, 화엄대교를 전하기 위해 화엄십찰을 창건했다.

한편, 범어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10월 31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정기음악회-이태원 참사 추모음악회'를 개최했다.

범어사는 어린이합창단 창단을 기념하는 정기 공연을 준비했으나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추모음악회로 변경해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음악회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신기열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후원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추모음악회는 추모묵념과 추모사 등 애도의 뜻을 전하는 식순으로 이어졌으며,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은 추모곡 '우리의 사랑의 필요한 거죠' '위로' 등 두 곡을 부르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음악회와 함께 진행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문화축전은 축소됐으며 나눔을 전하는 기부의식만 진행됐다.

삼광사, 신도회 창립 53주년 기념대법회

공로패 · 표창패, 자비의 쌀 전달
이태원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도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경내 지관전에서 '삼광사 신도회 창립 53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는 법회에 앞서 묵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아울러 삼광사는 기획했던 음악회를 전면 취소하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주지 영제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이헌승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등 내빈들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연혁보고 △표창패 · 공로패 수여 △자비의 쌀 전달식 △봉행사 △법어 △격려사 △축사 △관음정진 △발원문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공로패와 표창패는 배두석 외 19명에게 전달됐으며, 자비의 쌀 1만kg을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에게 전달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깊은 신심과 정성을 담아 도반들과 함께한 한걸음 한걸음이 별이 되어 도량을 빛낸다. 세월은 흘러도 초발심의 청정함이 푸른 소나무와 같이 한결 같으니 불심의 향기 백양산 자락에 가득하다"며 "관음염송 삼매 속에 미혹의 사바를 건너가는 반야용선에 높이 올라 성불의 길을 힘차게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천태종이 처음 부산에 신도회를 창립할 당시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다. 신도님들의 집과 예식장, 교육회관에서 법회를 보았으나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 백양산 자락에 지금의 대가람을 나투게 되었다"며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를 실천하는 신도들의 기도소리가 산을 넘어 물을 건너 지구 곳곳에 닿아 세상의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인류평화로 연화정토가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 · 해외교환학생 불교문화탐방

10월 30일, 경주 남산 일대 탐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장남주)가 10월 30일 경주 남산 일대에서 '해외교환학생과 함께 하는 불교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불교문화탐방은 체코, 러시아, 멕시코 등에서 온 대학생들에게 불교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동참해 화합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최은희 前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과 전정순 대불련 총동문회 지부장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명대학교, 인제대학교, 대동대학교,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7개 대학 학생과 체코, 러시아, 멕시코에서 온 교환학생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경주 남산 남산리에 위치한 동서 삼층석탑과 미륵골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탑곡마애불상군 등 문화재를 탐방했으며, 문화재 설명, 탑돌이, 참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은 "불교문화재는 오랜 전통과 문화의 진수이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성보"라며 "오늘 탐방에 해외에서 온 학생들과 많은 대학생들이 동참해 기쁘다. 앞으로도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 행사가 더욱 많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은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4년 만에 개최한 행사이다. 앞으로 있을 절수행과 다채로운 불교문화행사에도 높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부산 진흥사와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 부산교수불자회가 관광버스, 식사 및 간식, 문화상품권 등을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교육聯, 교학연구발표회 개최

현대교육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등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성이)가 10월 28일 금정중학교 도서관에서 제51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열린 이번 교학연구발표회에는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 신성현 불교교육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불교종립학교 12개 법인 28개교의 교장 및 교법사, 포교원, 재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금정중학교 학생들은 교학연구발표회에서는 3.1 독립운동을 주제로 연극을 선보여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주도한 금정중학교의 역사를 설명해 박수를 받았다.

이석언 금정중학교 교법사는 교학연구발표에서 '전통사찰을 활용한 청소년 포교방법' - 금정총림 범어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청소년포교사례로 △수계법회 △연등축제와 호기놀이 △3.1만세운동재현 △다도교육 △108배와 오체투지 △교내 점등식 및 금정 봉축제 △문화재 애호활동 △범어수효단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인성, 역사, 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융합교육이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은 "앞으로도 훌륭한 교육자로서 전법활동에 힘써 달라"며 "전법포교가 너무나 어렵고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는 금정학원 이사장 화랑 스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했으며, 금정중학교 박명규 교장과 이석언 교법사에게는 청소년 교화와 불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치하하며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청미단 운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장학기금 총 1000만 원 전달



청미단 운암장학회(이사장 운암)가 11월 1일 해동고등학교 법당에서 '청미단 운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청미단 운암장학회는 전달식에서 김도현 학생 외 9명에게 장학금 각 50만 원씩, 총 500만 원과 해동고, 해동중, 금정중에서 활동하는 파라미타 분회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해동고 우수교사로 선정된 안정수 교법사, 문제원 교사에게 연구지원비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전달해 총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청미단 운암장학회 이사 효산 스님, 이수길 해동고 교장, 안정수 해동고 교법사, 천용귀 해동중 교법사, 이석언 금정중 교법사가 참석했다.

효산 스님은 "과거 힘들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장학금인 것 같다. 꿈과 희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매진해 이루고자하는 원력을 꼭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길 해동고 교장은 "그 어떤 나눔보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응원하고 지지하는 운암장학회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런 나눔 실천이 학교와 학생에게 크나큰 격려가 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운암장학회는 지난 2019년 불교계 인재불사를 발원하며 창립해 매년 1000만 원을 해동고 학생 장학금과 우수동아리 활동 등에 지원하고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국불교무림종, 무술대학 창립



종합무술활동을 통해서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호국불교무림종(종정 김인극, 이하 무림종)이 10월 30일 약호사(주지 무불법승)에서 무술대학 창립기념식을 봉행했다.

무림종은 창립기념식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교육원장에 용산 스님, 부산종무원장은 혜명 스님을 임명했으며, 홍보대사에 이금화, 무술대학 부회장에 이서연, 문화예술원장에 배현숙, 홍보대사에 조상영, 고문변호사에 조영웅을 임명했다.

무림종은 종합무술, 동양심리철학, 체형교정, 범패, 불교예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6개월이다.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하면 포교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5년 창종한 무림종은 전국 470여 개 태권도 등 무술단체와 연합하여 각종 무술행사를 개최 및 후원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명사, '미륵대범종각 상량식' 봉행

범종각, 신흥수 대목장 맡아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30일 경내 일원에서 '미륵대범종각 상량대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사는 생명존중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미륵대범종각 상량법회를 봉행했으며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도를 전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상량식에는 주지 춘광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정법사 주지 보광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장 고담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동암 스님, 신응수 대목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광명사 미륵대범종은 높이 3.3m, 직경 1.9m, 무게 3300관(13t)이며, 미륵대범종각은 지상 1층 · 연면적 18.5평 규모로 현재 조성 중이다. 미륵대범종각의 불사는 신응수 대목장이 맡았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 배흘림기둥에 주심포집 양식의 팔작지붕으로 건축된다.

주지 춘광 스님은 "금일 들보를 올리는 광명사 종각은 시방으로 맑고 우렁찬 법음을 전파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지옥 끝에도 이르고 상월원각대조사의 장엄한 가르침이 만 중생의 해탈지견을 밝혀줄 것"이라며 "이 인연으로 대한민국 국운융창, 부산시민의 안녕, 생명존중과 세계인류평화를 기원하며, 광명사 종각 건립 불사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모든 불자의 심신 강건과 세세생생 성불의 복덕 성취를 발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옥천암, 산신재 및 행복쌀 나눔잔치

10월 29일, 백미 1080kg 전달



자비나눔실천도량 부산 황련산 옥천암(주지 대각)이 10월 29일 옥천암 경내에서 '제9회 산신재 및 행복쌀 나눔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일문 스님(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관음회 회장), 지오 스님(기원정사 주지), 천웅스님(동국불교대학교 동림동문회 동문회장),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 박재호 남구을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및 남구 구의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산신재 의식으로 시작해 2부 기념식에서 자비의 쌀 전달 및 주지스님 인사말, 격려사,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옥천암은 행사에서 자비의 쌀 10kg 108포대 총 1080kg을 오은택 남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주지 대각 스님은 "몇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파탄 나고 모두가 힘들 때에도 우리 옥천암 신도들은 나눔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며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신도님들의 보살행에 깊은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옥천암 산신재는 1985년 7월 5일 문현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영가들을 위한 위령재이다. 옥천암은 2014년부터 산신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매년 자비의 쌀을 지역민에게 전달해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 신흥사, 임란의병 추모 산사음악회



호국도량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가 10월 29일 경내에서 '임란의병 추모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음악회에는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 이상헌 국회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김준현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인 아리랑고고장구 및 색소폰 연주로 시작됐으며, 개회선언, 내빈소개, 인사말, 축사, 격려사, 시낭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바라춤, 판소리, 전자첼로 연주, 전통춤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신흥사는 635년 명랑조사가 창건했으며 임진왜란 때 승군이 의병과 연합해 왜적을 물리친 호국사찰이다. 승병을 이끈 지운대사는 의병과 관군에게 절 양식 300여 석을 보급했고, 신흥사를 훈련 장소로 제공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8년 불사 준비, 운문사 역사문화관 첫삽뜨다

운문사 10월 30일 역사문화관 기공식 개최

역사 문화 보존 교육 목적
1250건 성보 보존도 담당
명성 스님 "많은 노고 감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인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가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인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가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운문사가 보관해오던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공간이다.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는 10월 30일 경내 종각 앞 광장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기공식' 을 봉행했다.

운문사 종각 앞마당에서 진행된 기공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경과보고, 환영사, 격려사, 축사 및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비롯해 율주 일진 스님, 주지 운산 스님,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언 스님, 조계종 총무원 前문화부장 성공 스님, 이달희 경북경제부지사, 김하수 청도군수, 김선옥 불교여성개발원장, 김성규 법륜 교수불자회 고문,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박순곤 운문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운문사는 총 1250건의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지만 소장 유물을 보존, 관리, 활용하는 시설이 미비했다. 또 운문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와 문화 보존 및 전시 필요성도 느껴왔다. 이에 운문사는 2015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시발굴조사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이에 대해 "이날의 기공식이 있기 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운문사 역사문화관의 건립에 임해 준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지 운산 스님은 "2017년 건립 예산 신청과 함께 자부담금을 모연하기 시작했다. 2021년 사업비 교부 결정으로 불사가 이렇게 첫 삽을 뜨게 됐다. 여러 어려움에도 역사문화관 건립 불사가 원만성취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전통 강원을 개설하고 운문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회주 명성 스님의 희생이 있었다. 이번 역사문화관 건립으로 비구니 승가의 발전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도 축사를 통해 "운문사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하고 교육하며 홍보하는 문화공간 건립은 시대 사명"이라며 "운문사가 지닌 유구한 역사와 비구니 도량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후세에도 잘 전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운문사는 청정한 교육도량으로 한국불교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런 사찰에 변변한 문화전승공간이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불사과정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는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언 스님이 운문사승가대학 동문들을 대표하여 역사문화관 건립 불사기금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운산 스님에게 전달했다.

양산 미타정사 새롭게 문 열다

10월 30일 개원법회 봉행
신도 수계법회도 함께 열어


양산 미타정사는 10월 30일 미타정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양산 미타정사(주지 여해)는 10월 30일 미타정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는 미타사 주지 여해 스님, 통도사 한주 도암 스님,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 율원장 덕문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현덕 스님, 송광사 前강주 일귀 스님, 불일암 덕조 스님,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 통도사 前교수사 진목 스님, 자비선원 동일 스님, 전법회관 진무 스님, 정법사 송정 스님, 명원 스님, 통도사 강원, 율원 학인 스님, 김덕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수계법회에 이어 개원 선언과 명종5타, 삼귀의, 반야심경, 육법공양, 격려사(前 송광사 강주 일귀 스님/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축사(진목 스님/동일 스님/신도회장), 율주 혜남 스님 법문, 창건주 도암 스님 인사, 주지 여해 스님 인사, 내빈소개, 공지사항, 사홍서원,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은 법문에서 "〈화엄경〉에서는 한마음으로 일체도리를 알게하고 생사고의 중생들을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도록 이끌라고 설한다"며 "보시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후학양성"이라고 말했다.

미타정사 회주 도암 스님(통도사 한주)은 인사말에서 "청하기 어려운 스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며 "그 마음을 담아 주지 스님과 함께 지역불교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미타정사 주지 여해 스님은 "산사에서 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부단없이 정진하고, 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수계 및 개원법회를 통해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려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김덕환 신도회장은 "전국각지에서 무주상 보시한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염불, 명상, 스님법문, 담소, 휴식공간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년불자, 미륵불을 만나다'

대불청 40차 불청대회 금산사서
3년 만의 대회에 큰 원력 모여


'청년불자, 미륵불을 만나다' 를 주제로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진행된 불청대회는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 참여와 나눔과 함께 불국정토를 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마련됐다.

창립 102주년을 맞은 대한불교청년회가 제40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를 10월 29~30일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했다. '청년불자, 미륵불을 만나다' 를 주제로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진행된 불청대회는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 참여와 나눔과 함께 불국정토를 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마련됐다.

대회에 앞서 성악가 테너 이계향의 식전공연과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특별법문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시작됐다. 개회식에서는 대회기 입장, 우수회원 시상, 청년불자 결의 등이 이어졌다.

특설무대로 자리를 이동한 불청회원들은 3년만의 마음나누기, 국악 공연, 난타, 김용진 가수의 공연으로 대동놀이가 펼쳤다. 이튿날인 30일 오전 회향식과 함께 선운사, 내장사, 송광사 등 각 지구별 성지순례도 이어졌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대불청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닦고 불자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참되게 살아가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보살답게 보살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석희 전북지구 회장은 "이번 불청대회를 통해 전국의 불교청년회 여러분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며 불교청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 청년불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만해 스님께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 생을 바치신 것과 같이 청년불자의 깨끗한 마음으로 청년포교의 새 미래를 열자"고 역설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승병장 처영 스님과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 불교수호와 대중의 이익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손동대 회원이 불청대상을 수상했으며 구재완 회원이 자랑스러운 불청선배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칠불사, 제2회 지리산 고혼위령재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가 10월 29일 칠불사 선다원 앞 광장에서 '지리산 고혼 위령재 및 꿩 방생 대법회' 봉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도응 스님, 울산학춤보존회 고문 백성 스님, 장유 스님, 성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방생법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헌다 및 헌화, 행사소개가 이어졌으며, 사물놀이, 학춤공연 및 문화예술 공연도 진행됐다. 칠불사는 이날 영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령재에 이어 꿩 130마리를 방생하며 생명의 존귀함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주지 도응 스님은 "방생을 통해 업장을 녹이고 무탈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은하사 10월 28일 제9회 산사음악회

김해 은하사(주지 혜수)는 10월 28일 제9회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주지 혜수 스님을 비롯해 가야불교문화원 대표 성남 스님, 불모사 동담 스님, 해성사 월도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민홍철 국회의원, 홍태용 김해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사음악회는 타종 5타에 이어 법고무로 시작됐다. 주지 혜수 스님 인사에 이어 연합회장 성남 스님 인사말, 홍태용 김해시장 축사, 국회의원 축사, 붓다앙상블, GH윈드앙상블, 동담 스님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주지 혜수 스님은 "보다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김해불교가 융성하도록 함께 정진하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옥천사가 10월 27일 진주 경상국립대학 칠암캠퍼스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 를 개최하고 시작을 알렸다.

고성 옥천사, 대학생 마음약방 콘서트 개최

10월 27일, 경상대 칠암캠서 300여명 동참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10월 27일 진주 경상국립대학 칠암캠퍼스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 를 개최했다.

지역 대학생의 마음을 위로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행불선원 월호 스님, 달마사 해일 스님, 김용진 경상국립대 교수불자회장, 배설화 진주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회장, 김봉규 청담사상연구소 소장, 안정임 진주불교회관 부이사장, 박효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이사, 권현옥 후원회장, 진주불교청년회, 진주교대불교학생회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내빈소개, 법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최 취지 및 행사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첫 시작을 알린 이번 행사는 행불선원 월호 스님의 법문과 김무한 찬불가수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어 11월 24일에는 영화 '불효자는 웁니다' 영화상영 및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법문, 인디밴드 요술당나귀 최진규(라마) 가수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인 12월 29일에는 광우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노래하자' 법문과 비구니 현진 스님의 공연이 이어진다.

마가 스님은 인사말에서 "옥천사 주지 소임을 맡아 지역포교와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하고 열린 법석을 통해 이 시대 힘겹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마음약방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호 스님은 특강 보시금을 학생들의 포교 활동비로 지원해 의미를 더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16나한 점안법회

10월 27일, 경상대 칠암캠서 300여명 동참



군산 성흥사(주지 보위)가 11월 1일 16나한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주지 보위 스님을 비롯해 보선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김승수 신도회장 등 불자들이 참석했다.

송월 스님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지만 기도와 수행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성흥사가 지역 전법활동과 신도 신행활동의 중심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대표 기도도량인 성흥사는 이날 16나한 점안을 통해 석가모니불, 사리탑, 부처님 십대제자, 관음보살, 지장보살, 500나한 등을 두루 갖춘 사격을 지니게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회 (사)세계불교승황성 창립 대법회



(사)세계불교승황성 창립 대법회가 10월 29일 부여 마강사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승황 홍산 해전 스님,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화쟁교단 이사장 정암 스님, (사)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 재원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승황 홍산 해전 스님은 법어에서 "뜻깊은 선가의 전통 속에서 (사)세계불교승황성을 설립하고 세계 속의 한국불교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법석을 마련하였다"며 "정중무상 선사의 계정혜(戒定慧) 총지문을 기억하며 호국승병과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의식과 국가안녕, 경제부강 기도 법회를 세계만방에 고한다"고 설했다.

노덕현 기자

평화 화합 상징 '2,620 캐럿' 에메랄드 불상

경매서 태국 보석상들이 원석 낙찰
희소성 주목…불상 조성키로 합의
단일 보석공예로는 최대크기 눈길
모든 두려움·분쟁 없앤단 뜻 담겨

박영빈 객원기자



2620캐럿에 달하는 '신성한 에메랄드 불상'. 사진출처=국제보석학회

2,620캐럿의 에메랄드 원석으로 조성된 불상이 화제다. '신성한 에메랄드 불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불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조각으로, 방콕에 봉안된 '에메랄드 불상'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전했다. 지난 10월 24일 미술사와 고고학을 보도하는 외신 '에인션트 오리진'은 현재 태국 모처에 봉안된 불상 이야기를 전했다.

일반적으로 불교계에서 '에메랄드 불상'이라고 하면 태국의 수도 방콕의 왕실사찰인 왓 프라케오 사원에 모셔진 불상을 말한다. 이름은 에메랄드이지만 실제로는 준보석인 벽옥으로 조성된 불상으로 높이 약 66cm에 선정인을 한 좌불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불상은 부처님 재세시에 나가세나라고 하는 현자가 비슈누와 인드라신의 도움을 받아 조성한 불상이다.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가 1434년에 태국북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불상이 복장되어있던 불탑에 번개가 내리치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전한다. 이후 불상의 녹색빛깔로 인해 에메랄드 불상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수세기 동안 다시 여러 곳을 떠돌았다. 최종적으로 1779년 방콕이 태국의 수도가 될 때 당시 태국 국왕이 에메랄드 불상을 방콕에 사원을 짓고 봉안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에메랄드 불상은 태국에서 가장 신성한 불상으로 모셔지며, 왕실과 국가를 수호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년 계절에 따라 태국 국왕이 직접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가사와 보관을 공양 올리는 법요식을 봉행하여 그 신성성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한편 이 에메랄드 불상에서 영감을 받은 진짜 에메랄드 불상이 조성됐다. 1994년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3,600캐럿의 에메랄드 원석으로 조성된 이 불상은 '신성한 에메랄드 불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불상조성을 기획한 국제 보석 전문가 제프 버그만은 "방콕에 봉안된 '에메랄드 불상'과 신성성, 혹은 진위여부로 우위를 가지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다만, 방콕의 불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버그만은 "이 정도 크기의 천연 에메랄드 원석은 매우 드물기에 당시 전세계 보석상들이 경매에 뛰어 들었고, 최종적으로 태국의 보석상들이 낙찰 받아 태국으로 운송됐다. 보석상들이 각자의 몫으로 원석을 쪼개기 전, 그 희소성에 주목하여 함께 불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오랜 협상 끝에 버그만은 원석을 불상으로 조성한 후 태국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온전한 원석을 인수했다.

버그만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사와 자문을 받아 모든 두려움과 분쟁을 없앤다는 뜻이 담긴 시무외인을 한 불상 입상을 조성했다. 방콕의 에메랄드 불상과 같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되길 바라는 뜻이었다. 불상을 조성할 조각가는 미얀마에서 가장 뛰어난 불상 조각가인 아웅네인이 선정됐다.

불상은 최종적으로 지난 2006년 2월에 완성 되었으며, 이후 태국과 스위스의 권위 있는 보석연구소에서 감정을 받았다. 현재 불상은 2,260캐럿의 통 에메랄드로 되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기록상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조각상은 86,000캐럿이다 그러나 그 조각상은 이 불상처럼 전체가 투명하지 않으며 보석적인 가치도 떨어지기에 이 불상과 같은 보석 공예품은 유일무이하다"고 평가했다.

버그만은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불상의 소재를 밝힐 수는 없으나, 태국 국내 안전한 장소에 봉안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불상이 언젠가 다시 대중에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印, 2천년 전 발우 발견…명문도 남아

기원전 1세기 제작 추정
"불교 영향력 증명 유물"



텔랑가나 주에서 발견된 석제발우, 프라크리트어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사진 출처=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도 북서부의 유적지들을 조사하던 고고학 연구팀이 기원전 1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제발우를 발견해 화제다. 지난 10월 30일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세계 최고(最古)의 발우일지도 모를 석제발우의 발견 소식을 전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북서부에 있는 텔랑가나 주에서 사타바하나 시대(BC.230-AD.220)에 제작된 석제발우가 발견됐다. 발우는 만지라 계곡에 산재한 고대 유적지 중 카마레디 지구의 반스와다 마을 유적을 발굴 중에 출토됐다. 발우는 검은 돌을 깎아 만들었으며 외면에 브라흐미 문자로 한 줄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브라흐미 문자는 고대 인도문자중 하나로 아쇼카 대왕의 석주에 새겨진 칙령들은 모두 이 브라흐미 문자로 전해지고 있다.

발굴팀을 이끈 텔루구 대학의 조교수인 마 스리니바산 박사는 "석제발우는 만지라 계곡에서 발견된 여섯 번째 브라흐미 비문"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비문은 마우리아 시대와 사타바하나 시대에 속하며 텔랑가나의 초기역사 중 특히 사타바하나 시대에 이곳에서 불교가 융성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전했다.

발우를 정밀조사한 인고고고학조사국(ASI)의 무니라스남 레디 박사는 "석제발우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로 추정한다"면서 "발우의 구연부 외측에 산스크리트어의 속어인 프라크리트어로 '히마 부히야(Himabuhiya)' 혹은 '히마 부디야(Himabudhiya)'라고 새겨져 있다. 이에 따라 이 발우는 '히마'라는 이름의 비구니 스님이 소지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이 전해지면서 해외 불교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발우의 소재가 돌이라는 점에서 한 누리꾼은 "율장에는 출가자의 발우를 돌, 흙, 철 등으로 만들라 한다, 부처님께서도 석제발우를 쓰셨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된 것에 대해 고무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명문이 다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우로 독단하긴 이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만지며 부처님 떠올린다…日, 시각장애인 위한 불상

실명 진단 받은 중견 조각가
전통 건칠기법으로 불상 조성



조각가 미와 미치요가 건칠기법으로 조성한 '만지는 불상'. 사진출처=도쿄신문

시작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는 건칠불상이 전시돼 화제다. 지난 10월 25일, 일본의 '도쿄신문'은 보기 드문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독특한 형태의 불상을 소개했다.

일본의 중견 조각가로 유명한 미와 미치요는 최근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감상자들이 직접 손으로 그 형태와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했다. 미와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미술전을 감상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접 만짐으로써 그 형태를 확인하며 감상할 수 있다.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작품을 촉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시의도를 밝혔다.

미와는 도쿄 조형대학교와 도쿄 예술대학원에서 조각을 공부했고 옛 기법을 이용한 현대적 표현의 목조각 작품으로 유명하다. 특히 나라의 명찰인 토다이지(東大寺)와의 인연으로 옛 조사상을 복각하거나 사찰의 본존불을 조성하는 등의 실력파 작가다.

그러나 약 15년 전, 미와는 망막 색소변성증을 진단받아 시력이 점차 떨어지며 지난해 결국 실명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미와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조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토로 만든 원형에 옻을 먹인 삼베를 겹쳐 만드는 건칠 기법의 조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일본에서 건칠기법은 불상 조성하는 전통적인 기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 등장한 불상 역시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불상이다. 사람들이 직접 만지면서 최대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불상보다는 여기저기 부풀어 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직접 불상을 만진 한 감상자는 "겉으로 보기엔 돌처럼 검고 딱딱해 보였지만, 실제 만지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는 감상을 전했다. 또 다른 감상자는 "흔히 불상이라고 하면 멋진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뭉툭하게 여기저기 도드라진 부분을 만지며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마음에 떠오르는 경험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전시 갤러리 담당자는 "눈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작품을 어떻게 느끼는지 체험해 주길 바란다"며 이후 미와 작가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성지서 리얼돌 점안…"불교 모독"

쉐다곤 파고다 내 주차장서 진행
"불교성지 모욕 행위" 비판 일어



리얼돌 점안식 현장.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지난 10월 25일 영국의 '데일리메일' 'CNN 인도네시아' 등 해외 주요외신들은 미얀마 불교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에서 발생한 리얼돌 점안식이라는 기이한 사건을 보도했다.

미얀마 양곤의 랜드마크이자 성지로 불리는 쉐다곤 파고다에서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을 불상처럼 모시고 점안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점안식을 이끈 자르니 아웅은 즉각 체포됐다. 지난 10월 22일, 자르니 아웅을 필두로 한 7인의 괴한은 오전 7시경 쉐다곤 파고다에 도착했다. 리얼돌에 미얀마 전통의상을 입힌 후 왕관 등의 장식구를 부착하고 사원 입장을 시도했으나 출입통제로 인해 입장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경내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점안식을 진행했다.

성지에서 성인용품을 공개적으로 점안하는 사건은 전대미문으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을 촬영한 영상에는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67cm 리얼돌 2개가 합장을 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며 괴한들이 염불을 외우며 꽃과 과일을 공양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영상이 SNS등을 통해 퍼지자 미얀마 종교문화부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리얼돌 점안식 사건을 일으킨 주동를 불교모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발표와 함께 즉각 체포됐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불교성지에서 버젓이 불교를 모욕한 행위이며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며 이들의 행동을 비난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 디자인 현수막 및 각종 불교 용품 판매

원하시는 크기,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장주 (8m 100개 포장)





2023 불교카렌다 주문 받습니다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 (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723-4303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

이번 생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생 見性法 만나리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대종사



진리의 옛 바람이 항상 드날리고 있음이여!
바람을 따라서 비가 화(化)해서 앞산을 지나가누나.

바람을 따라 비가 화(化)해서 앞산을 지나간다는 이 말의 뜻을 알 것 같으면,
삼세 제불(三世諸佛)과 역대 조사(歷代祖師)와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열반락(涅槃樂)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느 누구라도 나고 죽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금일은 임인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이 삼동구순(三冬九旬) 결제 동안 모여서 안거(安居)를 시작함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의 대오견성(大悟見性)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들은 이번 안거에는 반드시 대오견성 하겠다는 태산 같은 용맹심과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매일 매일 발심(發心)과 신심(信心)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라.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느 생에 견성법(見性法)을 만나리오. 과거생으로부터 부처님 전에 정법(正法)의 인연을 간절하게 세운 자만이 이 견성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니,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사람의 몸을 받기도 어렵고, 사람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佛法)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최상승(最上乘)의 진리를 아는 선지식(善知識)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것은, 참으로 고준한 진리의 법문을 듣고서 실천에 옮겨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일이다.
그 좋은 법문을 듣고도 행(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하루 이틀 미루다가 백발이 되고 눈과 귀가 멀어지도록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번 안거에 대신심(大信心)과 대분심(大憤心)으로 용맹정진(勇猛精進)하여 자기사(自己事)를 밝힐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략〉

이 누구인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上無片瓦요
下無卓錐라.
日往月來에
不知是誰오 噫라.

위로는 한 조각 기와도 없고
아래로는 송곳 꽂을 데도 없도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알 수 없구나. 이 누구인가? 아! 애닯다.

총림대중이 모여서 임임년 동안거 결재를 하게 되었도다.

삼동결재 동안에 총림대중이 산문 출입을 삼가며 결계를 하고, 포살과 자자를 하며 오직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는 수행전통은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바이로다.

화두참구를 하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를 참구하여 사량분별이 끊어지고 진여의 본성이 확연히 드러날 때, 이를 일 마친 대장부라 하고 능히 공양받을 만한 이라고 하리라.

각자가 맡은 최소한의 소임으로 일을 줄이고 오직 정진에 전념할 때 우리는 불조와 시주의 은혜를 갚고 세간의 희망이 되리라.

天產英靈六尺軀하니
能文能武善經書로다.
一朝識破孃生面하니
方信閑名滿五湖로다.

하늘의 뛰어난 육 척의 몸을 낳으시니
문무에 능하고 경서도 잘 하도다.
하루아침에 본래면목을 깨달으니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 천하에 가득함을 믿겠노라.

전국 100여 곳의 선원이 11월 8일부터 3개월 동안 일제히 동안거에 들어갔습니다. 20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은 방부를 들인 선원에서 외출을 삼가고 화두를 참구하며 용맹정진합니다. 수좌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조계종 종정예하와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법어도 이어졌습니다. 이를 지면에 정리해 게재합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http://www.hyunbulnews.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진주보수(鎭州寶壽)가 풍혈연소(風穴延沼) 문하에서 정진할 때 일입니다.
안거에 들어갈 무렵 풍혈선사가 말했습니다.
"본래면목을 나에게 가져 오너라."
이 말씀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이튿날 아침 선지식을 찾아 떠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가지 못하게 말렸고 안거 동안 대중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가방화주(街坊化主) 소임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화주를 하기 위해 저자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말했습니다.
"이득임마무면목(你得恁麼無面目)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그 말을 듣고서 보수는 그 자리에서 크게 깨쳤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가시나무 숲 속이라고 할지라도 큰 도량에서 앉은 것처럼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진흙 속에 뒹굴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 들어온 몸이 더러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주보수 선사는 진흙 속에 뒹굴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 들어 온 몸이 더러워지는 홍진(紅塵)속에서도 언제나 애써 정진했기 때문에 "너는 어째서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안목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면목' 이란 결코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오직 헤아림을 넘어설 수 있는 납자라야 한 주먹으로 타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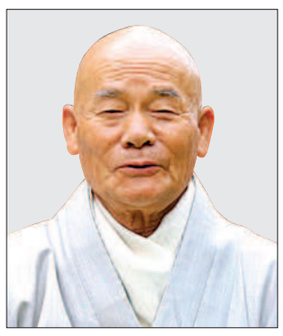
동안거 구십일동안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애써 정진한다면 선방이나 법당이나 공양간이나 운력장이나 포행길이나 모두가 수행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풍혈이 보수를 시정(市井)에 내보낸 까닭을 알게 될 것이요, 홍진(紅塵)에서 들은 '이득임마무면목(你得恁麼無面目)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한 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보수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처처(處處)가 깨달음의 장(場)이 될 것이며 정법안(正法眼)으로 사물과 사물을 대하게 될 것이며 하는 일마다 보살행이 될 것이며 걸음걸음마다 모두 대선정(大禪定) 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시상봉양지식(鬧市相逢兩知識)이여
면목무래태폐력(面目無來太廢力)이라.
분골쇄신미족수(粉骨碎身未足酬)이나
일구요연초백억(一句了然超百億)이로다.

시끄러운 저자거리에서 상봉한 두 선지식이여!
면목도 찾지 못하고 아예 기력마저 사라졌구나.
분골쇄신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족히 갚을 수가 없으나.
한 구절에 환히 깨달으면 백억 배를 초과하여 은혜를 갚으리라.

화두가 분별을 지워주니 언제나 새롭고 친해진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목숨이 호흡 사이다.
자나 깨나 성성한가?
오고 갈 때 한 조각을 이루느냐?
타성일편이 되는가?
이 생멸의 세계 밖에서
이 구슬 뜻대로 구르고 있는가?"
–만공스님 말씀–

야! 이것이다. '마하' 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네.
알 수 없다, 이 물건이여! 과연 쉬어지네.

동안거 입방이 결정되고 나니 가다듬어집니다. 안정이 됩니다. 戒香이요, 定香입니다.
벗어난 향기, 知見을 넘어선 향기, 이 향기가 소리 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향기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백억 달마 숨길 터지는 공양입니다. 바다 같은 불법승에 올리는 무량공양입니다.
한 생각 제자리로 오니 만사가 제 궤도로 돌아갑니다. 동안거 정진양식이 흐뭇하게 갖춰졌습니다. 시절이 깊어져 고목에 단풍이 들고 낙엽은 우르르 뿌리로 돌아갑니다. 노승은 추위가 닥치면 잎이 마르듯이 물길이 마르고 핏길이 빡빡해집니다. 흐르는 물이 말랐나, 활활 타는 불이 식었나? 지수화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략〉
화두가 분별을 지워주니 언제나 새로워지고 친해집니다. 화두 드는 것이 추위와 친해지는 묘수입니다. 분별을 덮어주는 어둠, 산하대지 굴곡을 다 덮어주는 어둠, 어둠이 분별을 없애줍니다. 어둠이 일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둠은 일체를 분별 전으로 돌려주는 푸근한 모성입니다. 결코 자연이 주는 이 어둠을 놓치지 마십시오. 갑자기 몰아치는 비바람 뇌성벽력도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신바람 나는 조도의 벗이 됩니다. 〈하략〉

물을 건너, 산을 넘어 이 길을 간다.
만산에 단풍인데 이 물건은 세월도 없네!
역력해서 賓主가 떠나고, 요요해서 色空이 끊어졌습니다.
空山에 비바람 잦아 낙엽은 누가 쓰나?
寂寂廖廖無一事 고요해져 일이 없네.
但看心佛自歸依 이~ 뭘까?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 안내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 임인년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8주간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는 스님들께서는 어렵게 준비한 특강에 많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일 : 11월 26일 (음 11월 3일) 토요일
■시 간 : 오후 3시 ~ 5시까지
■기 간 : 2개월 (매주 토요일)
■강 사 : 이기봉 스님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승교육사, 영산재보존회 연수원장)
■연락처 : 02)392-3234 옥천범음대학 교학처장 박장호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조고담

범어사와 인연 맺은 書畵 한자리에

신축기념 기증전 '소중한 인연 : 서화전'
범어사성보博 10월28일~2023년 2월5일

방장 지유 스님이 기증한 오세창 작품 등
신축개관 준비 5년간 기증 글·그림 전시
만해 등 필력·불법 통한 호국 의미 조명


위창 오세창 필 범어사, 지유스님 기증.


경봉 스님 필 화엄, 신성수 기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10월 28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 신축기념 기증전 '소중한 인연 : 서화전'을 개최한다. 2021년 신축개관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첫 번째 기증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5년간 신축개관 준비 중에 기증된 글과 그림을 선보인다. 특히 국보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불화와 불교 공예품 등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시해 왔던 성보박물관에서 근현대 서화가들의 작품까지 함께 선보인다는 점이 새롭다. 이번 전시는 프롤로그 '선찰대본산 범어사'를 시작으로 총 3부로 구성했다.

△프롤로그 '선찰대본산 범어사 : 마음의 근원을 구하는 수행도량'에서는 방장 지유 스님의 기증 유물들로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인연 이야기'를 시작한다. 범어사는 2012년 지유 스님을 초대 방장으로 모시고 '선찰대본산 금정총림'으로 자리매김했다. 위창 오세창의 '범어사', 해옹이 초의 선사에게 쓴 편지글 등을 전시한다.

△1부 '사경(寫經) : 수행과 정진의 과정을 담아내다'에서는 경전을 옮겨 쓰는 수행인 '사경수행'을 통해 묵묵히 걷는 여정의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기현 스님의 '화엄경'과 인장, 무착 스님의 벼루, 고산 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10폭 병풍' 등을 전시한다. 특히 1968년 범어사에서 출가한 뒤 사경수행에 정진했던 기현 스님의 유작 '감지금니 화엄경'은 화엄경 80권 전체를 사경한 완질이다. 권마다 12m에 이르는 장중한 사경 속에는 스님의 기나긴 정진수행 전부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

△2부 '선(禪) : 부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새기고, 세상을 바라보다'에서는 근·현대 서예가들의 작품을 통해 '禪'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교에서의 선은 마음으로 새기고,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현대 서예가들에게는 '선'에 드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예술로 승화는 좋은 주제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봉 스님, 성파 하동주, 유당 정현복, 청남 오제봉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경봉 스님의 '화엄'은 특히 화엄산림대법회를 통해 〈화엄경〉의 깨달음을 설파한 스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범어사 관음전 편액을 쓴 성파 하동주와 제자 청남 오제봉의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3부 '호국(護國) : 부처의 공덕이 넓은 세상으로 퍼지다'에서는 역사 속 어느 날은 태극기를 들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수행자이자 문장가, 독립운동가이자 한 나라의 국민이었던 작가, 그들을 이야기한다. 위창 오세창, 만해 한용운, 용성 스님 등의 글씨를 선보인다.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헌신했던 용성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내린 전계증도 선보인다.

동산 스님의 고모부이자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을 집성했던 오세창, 범어사를 중심으로 임제종 운동을 전개한 만해 한용운은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었다. 그들의 필력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진정한 호국의 의미를 조명한다.

2003년 개관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문화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신축 이전하여 2021년 11월에 현재의 위치(금정구 범어사로 296)에 개관했다. 1층 상설전시실과 2층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2층에는 기증전시실을 마련했다. 별도로 마련된 기증전시실은 기증유물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기증자들이 전한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박물관은 이번 첫 번째 기증전을 계기로 향후 박물관은 2003년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기증받았던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기증특별전을 연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범어사와 작가의 인연, 작품과 기증자의 인연, 기증자와 범어사와의 인연, 그리고 이제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들과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소중한 인연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기증이란 작품이 품고 있는 역사와 예술성에 기증자의 삶의 여정이 더해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일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범어사 성보박물관과의 소중한 인연들로 선보이는 기증 작품들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로 인연을 이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에 깃든 韓國美…카메라에 담다

사진전 '양현모, 塔 展'
11월 9일~12월 4일 통인화랑


정림사지 5층석탑 104x68cm

한국 석탑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온 양현모 사진가가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통인화랑(B1)에서 '양현모, 塔 展'을 개최한다.

양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양현모의 탑 사진은 '탑'이 지닌 상징성을 닮아 있다.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완성됐다.

양 작가는 일체의 '배경'을 배제시키고 오로지 탑만을 렌즈에 담았다. 탑 뒤에 검은 배경을 설치해 촬영함으로써 탑에만 집중했다. 탑만을 바라본 것이다. 그 결과는 관람자에게로 이어진다. 관람자 역시 작가가 바라보았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다. 탑을 배경으로 인식했던 대중의 시선을 탑 자체로 옮겨 탑의 조형미를 비롯한 모든 미학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탑'이라고 하면 주변의 자연과 배후의 사찰이 어우러진 풍경을 떠오르게 하지만 양 작가는 탑 자체에만 집중했다. 탑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양 작가는 탑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가 실현할 수 없는 빈티지 엔틱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하고, 최대 크기(8×10)의 원판 필름을 사용했다. 그리고 탑의 정중앙에서 촬영해 렌즈와 거리에 의한 왜곡현상을 없앴다.

촬영기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 초상화 기법에서 방법론을 찾았다. '정신'을 그려내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형상을 통해 정신을 전하기 위해 모든 점과 선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정성을 들여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 양 작가는 그 프로세스를 사진에 적용했다. 현재의 석탑이 지닌 조형과 그 현재의 조형이 품고 있는 '옛날'까지 담아내려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양 작가는 정중앙 촬영을 위한 사다리 등 500kg에 이르는 장비를 탑이 있는 산 속까지 옮겨야 했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양 작가의 탑 사진은 그렇게 탑의 과정을 닮아 있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번이고 촬영을 했습니다. 혹자는 의아해하지만 저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자체가 저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듯이 저의 사진도 그런 사진이고 싶습니다."

패션과 인물사진을 찍어왔던 양 작가는 2010년부터 한국 사찰의 전통 탑(석탑)을 찍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500여 점의 탑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한국의 아름다움, 그것이 탑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 작가는 또 다른 소재에 대한 질문에 "아직 탑을 끝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시문의 (02)735-4867

박재완 기자

송곡 조정우 10주기 추모전

통도사성보博 11월 5~20일


애민중생 73x127cm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불교미술의 거장 송곡 조정우 10주기 추모전'을 개최한다. 불모 조정우는 중요무형문화재 초대 단청장이었던 일섭 스님의 제자로, 스승을 말년까지 모시며 작품을 함께했고, 일섭 스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도 일섭 스님의 화풍을 가장 많이 닮아 그 실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로 인해 전국 각지에 수많은 탱호와 벽화, 단청작품을 남김으로써 한 시대의 최고 불모로 불린다.

이번 전시는 조정우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제자들이 마련한 것으로, 추모전에서는 '극락 지옥도' 등 조정우의 유작 20여 점과 초본, 습화 등의 유품들이 함께 전시되며, 제자들의 작품도 20여 점 전시된다. 이번 추모전을 시작으로 향후 불모 조정우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를 마련한 제자들은 "오늘 추모전은 스승의 고매한 인품과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선생님의 평생 원력이었던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일시: 11월 1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어떤 것의 본래적 성품인 '본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에 필수불가결하다. 이 책은 불교와 동서양 철학,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본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이필원 외 /신국판양장/432쪽/25,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백제代 '불교공예 정수' 평가

고대 사리장엄 연구 절대적 사료
고려 · 조선시대 전적 보물 예고
부석사 안양루 · 범종각 보물 지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제시대 불교공예의 정수로 알려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가 '국보' 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보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등 고려 · 조선시대 전적, 근대 등록문화재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인 봉화 청암정, 영주 부석사 안양루, 영주 부석사 범종각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탑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의 사리공(불탑 안에 사리를 넣을 크기로 뚫은 구멍)에서 나온 유물이다. 출토 사리장엄구는 639년(백제 무왕 40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았던 청동합 6점을 포함해 총 9점으로 구성돼 있다.

사리장엄구 중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 · 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는데,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 는 내용이다. 이는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 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힌 계기가 됐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사리장엄구 중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몸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이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양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사리장엄구 중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6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하나에는 '달솔(達率) 목근(目近)'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달솔이라는 벼슬(2품)을 한 목근이라는 인물이 시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을 바탕으로 시주자의 신분이 백제 상류층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시주한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함께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 확인돼 희귀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백제 왕실에서 발원해 조성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는 석탑 사리공에서 봉안 당시 모습 그대로 발굴돼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된다"면서 "제작 기술면에서도 최고급 금속재료와 백제 금속공예 기술의 역량을 응집해 탁월한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 이는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며 동아시아 사리공예품의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새롭게 지정 예고된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과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는 고려 11세기에서 12세기 동안 만들어진 불교경전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은 총 100권으로 구성된 〈유가사지론〉중 권66에 해당하는 고려 11세기에 간행된 자료로, 해당 권차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유일본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은 총 120권으로 이뤄진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권88에 해당하는 자료로, 1087년(고려 선종 4) 우리나라에 목판이 전래되면서 국내에서 간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1424년(세종 6)에 일본이 여러 차례 대장경판을 요구할 때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해 그 이후에 찍은 간행본은 국내에서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는 귀중본이다.

종로도서관 소장 〈불조역대통재〉 22권 14책도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원나라 승려 염상(1282~?)이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1334년까지 고승들의 전기(傳記)나 일화들을 시간 순으로 엮은 책으로, 1430년(명 선덕 5) 다시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 새긴 목판을 1472년(성종 3년) 인수대비(1437~1504)의 발원으로 찍은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고려, 조선시대 전적 등 7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흑산도 무심사지, 선종 · 관음도량 성격 가져"

불교문화재연구소 · 신안군
'무심사지' 주제로 학술대회
발굴성과, 보존 방안 논의해

고대 해양교류 중심지였던 흑산도의 무심사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흑산도 무심사지 복원 · 정비 활용 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성과와 보존 방안을 제시하고 무심사지의 불교사적 위상을 살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진덕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신안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본 유적의 성격' 주제 발표에서 4차례에 걸친 무심사지의 발굴성과를 조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무심사지에 대한 조사는 1999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가 상라산성을 조사하던 중 통일신라시대 '무심사선원(无心寺禪院)' 명 기와를 수습하면서 사찰 명칭이 파악됐다. 이후 목포대 박물관에서 2009년 1차 시굴조사를, 전남문화재연구소에서 2015년과 2016년에 2 · 3차 발굴조사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2021년 4차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11월 3일 열린 흑산도 무심사지 복원 · 정비 활용 방안을 위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주요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차례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6동과 수혈 7기, 구상유구 2기, 석렬 2기가 확인됐다. 8세기 중엽부터 14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김 팀장은 "흑산도는 최근 이뤄진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친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특히 관사터에서 출토된 '법당지' 기와편 등과 무심사지에서 출토된 '관' 명 기와편 등은 고려시대 사찰의 사역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심사지 중심권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와 함께 관사터 주변의 발굴과 연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선혜 호남대 교수는 '신안 흑산도 무심사지의 불교사적 위상' 주제 발표에서 무심사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찰이었는지를 살폈다. 신 교수는 "장보고가 무심사를 비롯한 서남해안 선종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도 있었겠으나, 법화원에도 선종 승려가 상주했던 점을 통해 장보고의 법화 신앙과 선종이 사상적으로 합일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남해안 선종의 성격에 관음 신앙적 요소를 보임에 따라 무심사 역시 선종사찰로서 관음신앙을 중요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 흑산도의 국제항적 면모(강봉룡 목포대 교수)', '신안군 석조문화재의 현황과 특징(이현수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이 각각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오호석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사, 곽승혁 신안군청 학예사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 박우량 신안군수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제2회 한암상 수상자 무비 스님 선정

한국불교학회 11월 2일 발표
"韓불교 대표하는 교학 종장"
11월 4일 추계대회서 시상식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암상 수상자로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는 "제2회 한암상 수상자로 한국불교 대강백인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2회 한암상 수상자인 무비 스님은 1958년 범어사로 출가해 해인강원과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하고, 제방 선원에서 10여 년을 안거정진했다. 1976년 한암 스님의 수제자인 화엄종주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우고 법을 받았다. 이후 스님은 통도사 강원 강주와 범어사 강원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과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불교학회는 "평생 번역과 화엄학을 중심으로 동양학 홍포에 매진했던 탄허 대강백의 뜻을 받들어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81권과 〈직지 강설〉 2권 등 총 20여 종 130여 권을 번역 · 찬술하는 청출어람의 면모를 보였다. 무비 스님은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과 자비로운 지도로 한국불교 교학의 대종장으로 우뚝 서 계신다"면서 "무비 스님의 공훈은 한암 선사의 청정한 수행 가풍과 한국불교를 밝히는 높은 뜻에 부합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4일 오후 3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한암상은 한국불교학회와 월정사가 한암 스님의 정신을 기려 불교학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신성민 기자

보물 '봉화 축서사 괘불' 첫 서울 나들이

불교중앙박물관 11월 동안 전시
특별전 '등운산 고은사' 일환으로
고운사 말사 괘불 3점 교체 전시
봉정사 관음좌상 보관 없이 공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봉화 축서사 괘불' 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시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11월 1일부터 한 달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보물 '봉화 축서사 괘불' 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와 소속 말사의 성보를 엄선해 특별전시하는 '등운산 고운사' 의 일환으로 특별전에서는 고운사 말사의 괘불 3점이 순환 전시되고 있다. '봉화 축서사 괘불' 은 마지막 순환 전시 괘불이다.

'봉화 축서사 괘불' 은 1768년에 제작된 높이 894cm, 너비 509cm의 크기로 대형 불화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배경에 솟아오르는 모습의 구름을 채워 넣어 법석에 강림한 부처님의 상서로운 모습을 극대화했다. 석가모니불을 홀로 그린 독존 형식의 괘불이지만, 광배 위로 화불과 보살을 표현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봉화 축서사 괘불' .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시된다.

이 같은 도상은 이전에 조성된 괘불에는 보이지 않는 새롭게 나타난 도상이다.

괘불의 화기(畵記)에는 정일 스님과 낙선 스님, 일성 스님 등 10명의 스님들이 1768년 3월 14일에 불사를 시작해 25일간 괘불을 그리고, 4월 부처님오신날 축서사 대적광전에 점안 · 봉안한 기록이 남아 있다. 괘불 조성에는 환성 지안 스님의 3세손이자 1769년 봉정사의 경판 조성 불사를 증명하였던 벽허 명찬 스님이 증명으로 참여하고 있어, 당시 영남 북부지역 문중 불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괘불은 사찰의 야외에서 설행되는 의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성보다. 보존 문제로 최근에는 괘불을 현괘(懸掛)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찰을 방문해도 이를 친견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에서 처음 전시되는 '봉화 축서사 괘불' 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과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이 최초로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1개월간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은 보관을 쓰지 않은 모습으로 특별공개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높은 보계(보살상의 머리를 위로 묶은 상투)의 표현은 고려 중기 불교조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며 "고려시대 보관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과 함께 영남 북부지역의 뛰어난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에 유근자 교수 선정

'조선代 왕실발원 불상 연구'로
억불시대 불상 조성 현상 조명

'2022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유근자 동국대 초빙교수〈사진〉가 선정됐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는 11월 1일 "올해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유근자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 저술은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2022)이다.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조선시대는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을 표방해 불교가 억압받은 시대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 측면에서 '불교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시기' 였음을 저자는 강조한다"면서 " '억불(抑佛)을 해야 한다던 조선시대 절대 권력층이 어떻게 · 무엇 때문에 공공연히 계속해서 불상을 조성했던 것인가' 를 사료의 자세한 인용과 분석으로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2018년 저술 출판 지원 사업' 에 선정된 결과물"이라며 "이 저서는 왕실에서 조성하거나 중수한 불상 가운데 기록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은 12월 말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밝은사람들연구소, 3년만에 대면 학술연찬회

11월 19일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주제로

깨달음, 분노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열었던 밝은사람들연구소가 3년만에 대면 학술행사를 연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1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를 주제로 제21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본성에 대해 초기불교 · 대승불교 등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초기불교 측면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본성, 그 상상 너머' 를, 대승불교 측면에서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이 '마음의 해석학:본성이란 무엇인가' 를 발표한다.

동양철학 · 서양철학 · 심리학 측면에서는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가 '질서를 낳는 본성과 질서랑 일체화된 본성' 을,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가 '인간의 본성: 이성, 자기실현과 생명성' 을,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본성 실현을 향한 자아초월의 길' 을 각각 선보인다.

연찬회 교재는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11월 초 출간하는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이다. 연찬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9



▶ **90회 예고**

마힌다는 3년 만에 스승 목갈리뿟다띳사가 있는 아호강가산을 다시 찾는다. 아쇼까왕이 설법하는 것을 재가했기 때문이었다. 스승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난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뜻을 전한다. 이로써 아쇼까라마는 정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마힌다, 스승 목갈리뿟다띳사를 찾다

아호강가는 강가강 북쪽 야무나강 안쪽에 있는 마투라 지근거리에 있었다. 마힌다는 마투라 동쪽 나루터에 상선이 멈추자 몇몇 상인들과 함께 내렸다. 멀리 언덕 같은 야트막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힌다는 한눈에 숲이 울울한 그곳이 아호강가산(山)이라고 짐작했다. 낯선 이름은 아니었다.

야무나강 강변 들판의 널따란 밭에는 사탕수수가 웃자라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옆에는 거친 풀을 뜯는 염소 떼들이 어슬렁거렸고, 도랑을 흐르는 물줄기가 돌돌돌 소리치며 흘렀다. 마힌다는 갑자기 베디샤나가르에 머물던 시절이 그리웠다. 산치 언덕이 가까운 베디샤나가르에는 베디샤 상인수장이었던 외할아버지의 널따란 농원이 있었던 것이다.

길 저쪽에서 발우를 든 한 사문이 걸어오고 있었다. 마투라로 탁발을 나가는 사문 같았다. 마힌다가 말했다.

"사문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아십니까?"

"삼부따 사나와시 아라한께서 머무셨던 꾸띠에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누더기를 걸친 사문은 마힌다 곁을 바람처럼 휙 사라졌다. 마힌다는 아난다의 가풍을 흠모하고 따르던 사나와시가 우빠굽따 장로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아!'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사나와시 아라한은 평생 숲속의 아란야(Araṇya)를 떠나지 않았으며, 탁발을 하는 걸식자였으며, 공동묘지에서 주워온 누더기만 입은 분소의자였으며, 오직 세 가지 가사만 가진 철저한 율사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목갈리뿟다띳사가 왜 아호강가산으로 와서 은둔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이해했다. 아호강가에는 사나와시 아라한이 이미 열반에 들어 없었지만 계율을 중시하는 그 후예들이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마힌다는 목갈리뿟다띳사가 머물고 있는 꾸띠에 이르렀다. 반얀나무 한쪽에 자리한 꾸띠는 아쇼까라마의 벽돌집과 달리 갈대로 얼기설기 지붕을 덮은 초라한 움막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꾸띠 밖 밝은 곳에서 해진 누더기를 깁고 있다가 마힌다를 맞이했다. 자신에게 비추는 햇볕을 가리자 마힌다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마힌다는 엎드려 오른손으로 목갈리뿟다띳사의 발을 만진 뒤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장로여, 무슨 일로 왔소?"

"스승님이시여, 대왕님의 명으로 왔습니다."

"대왕님 명이 무엇이오?"

"스승님을 모셔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쇼까라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수행하는 이곳 사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없이 행복하다오."

"대왕님은 아쇼까라마를 정화해왔습니다. 특별히 담마마하마따를 보내 이교도들이 사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왕님께서 담마칙령을 새긴 석주를 곳곳에 세우신 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그것만으로 외도들을 정화했다고는 볼 수 없소."

"대왕님은 짐승끼리 싸우게 하는 사마자를 금지시켰고 최근에는 살생을 금지하는 담마칙령을 내렸습니다. 대왕님 자신부터 담마를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승님이시여, 담마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대왕님을 위해 아쇼까라마로 복귀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대왕님은 담마를 위해 더욱 힘쓰실 것입니다."

그래도 목갈리뿟다띳사는 완강하게 팔을 저었다. 마힌다의 간곡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대왕님을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아프오. 대왕님께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아쇼까라마는 내가 머물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오."

마힌다는 더 이상 권유하지 못했다. 마힌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오늘은 빠딸리뿌뜨라로 가는 배를 타기에 늦었소. 나루터에서 자겠소? 아니면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머물렀던 동굴로 가서 자겠소?"

"동굴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곳이라오."

"고맙습니다."

마힌다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따라서 동굴이 있는 곳으로 갔다. 동굴은 꾸띠에서 조금 멀었다. 아호강가산 동쪽 절벽에 있었다. 동굴인데도 내부가 어둡지 않았다. 햇빛이 동굴 안으로 흘러들어와 있었다. 멀리 야무나강이 반짝거렸고 강변 모래밭까지 펼쳐진 들판이 보였다.

"여기서는 아쇼까라마와 달리 탁발해야 하오. 그러니 마투라로 나가 한 번은 탁발하시오."

"알겠습니다. 스승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는 벌써 등을 보이고 있었다. 마힌다는 문득 스스로 탁발해본 적이 오래 되었음을 상기했다.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아쇼까왕이 날마다 베푸는 공양을 받기만 했던 것이다.

다음날 오후. 마힌다는 빠딸리뿌뜨라로 가는 상선을 탔다. 상선은 바라나시 나루터에서 하루 동안 멈추어 있다가 빠딸리뿌뜨라로 출발했다. 바라나시에서 가장 많은 물품을 하역했다. 돌아온 마힌다는 즉시 아쇼까왕 집무실로 갔다. 아쇼까왕은 덤덤하게 마힌다를 맞았다. 마힌다가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님은 아호강가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그곳 사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문들이 살고 있기에 그렇소?"

"계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문들입니다."

"어떻게 지키기에 그렇다는 것이오?"



"제 눈으로 보았던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숲을 떠나지 않는 삼림주자(山林住者)들이었고, 두 번째는 탁발하는 걸식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주운 천을 걸치는 분소의자(糞掃衣者)들이었고, 네 번째는 세 가지 가사만 소유하는 삼의자(三衣者)들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어째서 중요한 것이오?"

"고따마 붓다는 물론 당시의 모든 비구들이 네 가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가 자신의 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칭찬의 말을 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소. 장로가 그렇게 하니까 최고의 율사로 존중받는 것이오. 나는 더 기다리겠소. 마힌다 장로가 다시 가서 내 뜻을 전하시오."

"저도 스승님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오시오. 나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 예전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듣고 싶소."

"스승님은 원하시는 것이 없을 듯합니다. 현재에 아주 만족하고 계시니까요."

"내 말을 전하면 장로님은 신통으로 무슨 뜻인지 바로 알 것이오."

마힌다는 아쇼까왕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더 묻지 않았다.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나면 알게 될 것이므로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대왕님이시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이번에는 다른 장로를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뵙고 돌아오다가 발바닥에 상처가 나 지금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여, 당장에 떠나라는 말은 아니오. 우기가 시작되면 강물이 범람할 것인데 위험한 시기에 배를 타고 어떻게 거기를 오갈 수 있겠소?"

"우기가 끝날 무렵에는 제 상처도 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도 되오."

마힌다는 문득 우기가 지나가는 동안 목갈리뿟다띳사가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위나 석주에 담마칙령을 새기는 한편 스스로 담마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아쇼까왕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아쇼까왕은 한때 목갈리뿟다띳사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던 것이다. 아쇼까왕이 궁중의원을 불렀다. 그런 뒤 지시했다.

"마힌다 장로의 발을 치료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시기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치료하면 곧 나을 것입니다."

"알았소."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집무실을 나와 우빠굽따가 머무는 꾸띠로 갔다. 우빠굽따는 마힌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맞았다.

"마힌다 장로여, 아호강가산의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님께서는 잘 계시던가요?"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아쇼까라마로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님처럼 아쇼까라마를 사랑하는 분도 없습니다. 수석장로님께서 오시지 않는 까닭은 아직도 이곳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 어느 때인가는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외도들이 모두 물러갈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오."

"대왕님께서는 스승님의 설법을 몹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외도들을 당장 아쇼까라마 밖으로 추방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담마마하마따가 있지만 외도를 분간하기란 한계가 있지요. 게다가 장로들은 그들과 논쟁하기를 꺼려하고."

"대왕님께서 특별한 명을 내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왕님께서도 담마마하마따처럼 사문과 외도를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겠소? 쉬운 일이 아니오."

우빠굽따에게서도 외도를 추방할 대책을 듣지 못한 마힌다는 실망했다. 담마마하마따는 너무나 사무적이고 또한 장로들은 논쟁과 다툼을 꺼려하므로 별 수 없었다. 마힌다는 우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목갈리뿟다띳사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마힌다는 해를 넘긴 뒤 또 다시 아호강가산으로 갔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침에는 마투라로 탁발을 나가고, 낮에는 동굴에서 기도하고, 밤에는 자신의 꾸띠로 돌아와 어린 사미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런데 목갈리뿟다띳사의 태도는 여전했다. 마힌다가 아쇼까왕의 말을 전하자마자 팔을 휘휘 저었다.

"나는 대왕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오."

"대왕님께서는 스승님의 설법을 듣고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쇼까라마와 상관없이 설법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설법이라면 모를까 아쇼까라마에 상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오."

"스승님께서 아쇼까라마로 돌아오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잠시 오시어 설법이라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명을 다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목갈리뿟다띳사로부터 반승낙은 받아냈다고 자위했다. 그러나 이는 마힌다의 생각일 뿐 아쇼까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랐다. 마힌다는 빠딸리뿌뜨라로 빨리 돌아가 스승의 설법만이라도 아쇼까왕에게 재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㉑ 신라 선승의 구도수행 2



▶한줄요약
혜소는 귀국하여 상주 남장사에 주석하며 홍주종을 전파했고, 이엄은 911년 귀국하여 김해 소율희(蘇律熙)의 귀의를 받게 되어 본격적 대중교화를 시작하고 수미산문을 여는 등 신라의 구법승들은 활발한 구법여행 후 이 땅에 선법을 심고 넓혔다.

밖으로 떠난 '구법'과 안에서 이룬 '구법'

7. 돌아온 혜소, 도의와의 약속을 지키다

진감 혜소(慧昭, 774~850)가 신감(神鑑)을 뵈었다. "반갑다.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쁘게 다시 만났구나." 신감은 전생 수행 인연을 환기하고 바로 인가를 해주었다. '초발심이 정각'임을 실천했다. 숭산 소림사 '유리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니, 인도 스님이 유리병을 바치며 "당신의 자식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태몽의 계시가 그대로 실현됐다.

도의와 혜소는 양쯔강 남북 유역을 오가며 따로 순례를 하다가 신라 출신 무상(無相)의 영당 참배차 성도로 갔다가 만난다. 두 사람은 귀국하면 선법을 펼치자 굳은 약속을 하며 구법여행을 함께한다. 혜소는 20살 많은 도의를 스승과 같이 모셨고, 도의는 혜소에게 홍주종(洪州宗. 말의 기능을 부정하고, 일상의 지각으로부터 바로 깨닫게 하는 선종)의 수행법을 전수해주었다.

혜소는 귀국하여 상주 남장사에 주석하며 홍주종을 전파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지리산 쪽으로 옮겨가는데 호랑이 몇 마리가 길을 인도하였다. 세상 존재들에 대한 차별적 분별을 넘어선 혜소의 도력에 감복한 호랑이들이 기꺼이 그 과업을 도맡았을 것이다. 신감으로부터 범패를 배운 혜소는 대중교화를 위해 범패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범패 음악의 기틀을 마련했다.

혜소는 옥천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법을 베풀었다. 지증 도헌(道憲)이 독자적인 희양산문을 성립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도의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킨 것이다.

보살이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평상의 마음이 곧 도이니라." 이 한 마디에 범일은 크게 깨달았다. 약산 유엄(惟儼)을 찾아갔다. 약산이 물었다. "어디서 떠났는가?" "강서에서 떠났습니다." "무엇 하러 왔는가?" "화상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는데, 그대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화상께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 저는 화상을 뵙지도 못할 것입니다." 약산이 찬탄했다. "대단히 기이하구나. 대단히 기이하구나. 밖에서 들어온 맑은 바람이 사람을 얼리는구나." 범일은 이렇게 중국 선지식과 선문답을 활발발하게 구사하여 신라 선승의 경지를 드날리고 스스로 더 나아갔다. 귀국한 범일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40년 동안 '줄지은 소나무로 도를 닦는 행랑'으로 삼고 '평평한 돌을 좌선하는 자리'로 삼았다.

대경 여엄(麗嚴, 862~930)은 〈화엄경〉을 공부했지만 교종이 최상승의 진리가 아님을 알고 선종으로 다가갔다. 입당하여 운거 도응(道膺)을 뵈었다. 도응은 "그대와 이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네!"라고 말했다. 신감이 혜소를 만났을 때와 같은 환영의 말이었다. 선각 형미(逈微), 법경 경유(慶猷), 진철

중국 선사와 당당한 선문답
혜소, 범패 활용한 대중교화
도선, 이 땅의 풍수설 정립



도선은 이 땅의 산수와 산세에 대한 밝은 안목으로 풍수설을 정립하고, 고려 건국에 기여했다. 사진은 도선국사 진영.

이엄(利嚴) 등이 찾아갔을 때도 도응은 같은 수사로써 신라 선승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제자로 받아주었다.

여엄을 이어 진철 이엄(利嚴, 870~936)이 운거 도응(道膺)의 문하로 들어갔다. 여염은 6년간 고행을 이겨냈다. 도응은, "도는 본디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니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노라."라고 말하며 이엄에게 심인을 전했다. 이엄은 911년 귀국하여 김해 소율희(蘇律熙)의 귀의를 받게 되어 본격적 대중교화를 시작하고 수미산문을 열었다.

9. 이 땅을 딛고 일어서다

보조 체징(體澄, 804~880)은 염거(廉居)의 인가를 받은 뒤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온누리의 본체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체징의 귀환은 원효의 중도귀환과 함께 선승들이 중국으로 구법여행을 떠나지 않고 이곳의 산수와 속세에서 수행하는 흐름을 열었다.

최치원이 지증 도헌(道憲, 824~882)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서역이나 중국에 가지 않고도 도에 이른다."라고 설파한 것도 이런 흐름을 포착한 것이다. 도헌(道憲)은 구산선문 개창자 중 유일하게 중국 유학을 다녀오지 않고서 희양산문을 개창했다. 일찍 도를 이룬 도헌은 후배들이 법을 구할 때마다 제접을 거절했다. 어느 날 늙은 나무꾼이 나타나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못 깨달은 자를 깨우쳐 주는 데 어찌 그리 인색한가!"하고 꾸짖고는 사라졌다. 그 뒤로 도헌은 찾아오는 수행자를 거절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수행한 선승이 이 땅의 젊은 수행자를 제접하고 지도하는 '토종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도선(道詵, 827~898)은 15살 때 출가하여 〈화엄경〉 신동으로 통했지만 〈화엄경〉의 언어에 만족되지 않아 적인 혜철(慧徹, 785~861)의 문하로 들어갔다. 동리산문의 개산조인 혜철은 도선의 상근기를 간파했다. 도선은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을 거듭 사유하다 바로 깨달았다. 혜철의 인가를 받은 도선은 중국 유학 대신 이 땅의 명산대천을 떠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수에 바탕을 둔 풍수를 터득했다. 방방곡곡을 다 둘러본 힘으로 곡성 옥룡사에 35년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길러냈다.

진경 심희(審希, 855~923)는 19살에 구족계를 받은 후 이 땅에서의 운수행각을 시작했다. 심희는 "선종이 동쪽으로 왔으니, 무엇 때문에 서쪽으로 가겠는가. 나는 이미 혜목(惠目, 玄昱) 선사로부터 법을 받았고, 이곳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어찌 뗏목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뗏목을 탈 뜻을 갖겠는가?"라며 중국 유학을 거절했다.

863년 9살 나이에 현욱에게 출가한 심희는 여주 혜목산 고달사 선풍을 더욱 크게 일으켰다. 그러나 891년 궁예가 북원[원주]을 공격하자 김유신의 후손으로서 친신라적 입장에 있던 심희는 고달사를 포기하고 강진 송계선원으로 가서 참선을 가르쳤다. 이듬해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자 심희는 양양 선림원지(禪林院址)로 옮겨갔다. 거기서 명주 굴산선문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894년 궁예가 명주를 공격하자 다시 김해로 떠나야 했다. 김해지역 지방 호족인 소율희의 도움을 받아 창원 봉림사를 개창했다. 견훤이 경상도 일대를 공격할 때 봉림사는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봉림사를 거점으로 삼아 은사 현욱이 세운 고달사의 전통을 부흥하려던 심희의 뜻이 꺾였다. 심희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유학을 떠났던 원종 찬유(元宗燦幽, 869~958)가 돌아왔다. 찬유는 924년 스스로 고려 태조를 찾아갔다. 친신라적이었던 은사 심희와 전혀 다른 정치노선을 천명한 것이다. 고달사는 찬유에 의해 찬란히 부흥되었다.

낭원(朗圓, 854~930)은 화엄사에서 〈화엄경〉을 배웠다. 남해 금산으로 가서 백일 동안 곡기를 끊고 이어 3년간 솔잎만 먹으며 보리를 증득하려 했다. 참선 중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빨리 사굴산을 찾아가시오. 거기 신인[범일]은 능가보월의 마음과 종성을 모두 통달했다오."라고 했다. 신인은 중국 선지식이 아니라 국내 선지식인 범일을 참문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진공0운(眞空0運, 855~937)은 가야산 선융(善融)의 문하로 들어가 계속 머물며 경전과 계율을 공부했다. 어느 날 선융은 은거하겠다며 제자들을 모두 내보냈다. 진공의 뜻하지 않은 운수행각이 시작됐다. 한 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수행승이 안거한 흔적이 있었다. 땅에 서린 그 기운을 흠모하며 수행하다 설악산 진전사로 갔다. 절에 남아 있는 도의(道義)의 자취를 발견하고 감동했다. 영탑과 진영을 참배한 뒤 영원히 도의의 제자가 되는 의식을 올렸다. 그 뒤로 진공은 '선승'으로만 자처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도의를 추모하며 더 치열하게 수행했다. 잠시 김해 초은(招隱)의 거처에 주석하니 학인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왔다.

올라와 소백산사(小白山寺)를 중건하고 주석하는데 태조가 궁중으로 모셨다. 진공은 나라를 이끌어갈 기본 마음을 밝혀주었다. 진공을 흠모하던 태조는 진공에게 개경에서 주석하기를 간청했지만 진공은 뿌리치고 소백산으로 돌아왔다. 진공은 제자들과 수행을 이어갔다.

제자가 물었다. "가섭은 어떤 분입니까?" "가섭이니라." 또 물었다. "석가는 어떤 분입니까?" "석가일 뿐이니라." 언설을 내려두고 선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8. 말 없는 가운데의 말, 법 없는 가운데의 법

적인 혜철(慧徹, 785~861)은 입당하여 서당 지장(地藏)을 찾아갔다. 지장의 인가를 받은 혜철은 지장이 입적하자 서주 부사사(浮沙寺)로 가서 대장경을 공부했다. 3년 동안 자리를 펴지도 눕지도 않고서 열중하니 경문의 오묘한 뜻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문장과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혜철은 경전 읽기에 충실했지만 궁극의 마음은 선에 있었다. 마침내 "부처는 본래 없는데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고, 나도 본래 없는 것이므로 일찍이 어떤 물건도 있은 적이 없다. 묵묵한 마음이 곧 진심(眞心)이고 적적한 지혜가 곧 진혜(眞慧)인 것이다."라며 언어를 넘어선 진리를 깨달았다.

통효 범일(梵日, 810~889)은 중국 선지식을 두루 참문하며 당당한 선문답으로 수행을 이어갔다. 염관 제안(齊安)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동국에서 왔습니다." "수로로 왔는가, 육로로 왔는가?" "두 가지 길을 모두 밟지 않고 왔습니다." "그 두 길을 밟지 않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해와 달, 동과 서가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제안이 "실로 동방의 보살이로다."라고 칭찬했다. 범일이 물었다. "어찌하여야 바로 부처를 이룹니까?" 제안이 답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그저 더럽히지나 말라. 부처라는 견해,

10. 이 땅 산천을 누빈 결실

신라의 선승들은 중국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과 산천을 경험했다. 익숙한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좁은 안목을 벗어던지고 온 세상이 다기로우면서도 하나인 화엄 연기를 목도했다. 다른 한편 이 땅에 남아 이 땅 산수를 편력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했다. 이곳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새 세상이 도래하는 것도 감지했다. 이른바 지방 호족과 백성의 등장이었다. 선승은 가장 이른 시기에 방방곡곡의 '지방'을 발견해주었다.

풍수설을 정립한 도선은 이 땅에서만 산 선승이었다. 이 땅 산수와 속세에 대한 선승의 밝은 안목은 심희의 경우처럼 후삼국 시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격심한 고초를 겪게 했지만, 불교국가 고려의 건설과 지속에 일정하게 기여하기도 했다.

왕건이 국정의 요체를 묻자 여엄(麗嚴)은, '제왕과 필부의 닦을 바가 다름'을 강조한 뒤, '백성을 자식으로 여겨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능한 죄인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 자비로운 군왕'으로서 나라를 이끌라고 조언했다. 선승이 오랜 세월 이 땅을 운수행각 하면서 일으키게 된 중생에 대한 연민이 이 말에 다 담겼다.

〈연세대 객원교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9년10월31일(목요일)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 방영
■ 2022년2월16일(수요일)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1000m 자생「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나는 이렇게 붓다가 되었다
- 깨달음의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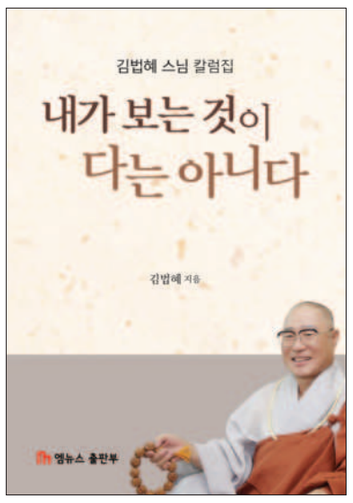
『붓다자나 아카데미』는 붓다를 완성한
"깨달음의 경" 전법으로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수행 불사입니다.
정법을 선양하고 붓다의 혜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정 수행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수강과목	붓다자나(깨달음의 경) 수행체계 (141아디까싸라 : 118싸띠, 21보디, 2쌈보디)
수강인원	16 아라한(선착순 마감)
수강대상	만 50세 미만, 비구 · 비구니 (종단 구별 없이 신청 가능)
수강기간	1년(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수 강 료	월 10만원 (농협 843173-51-026991. 예금주:길상암) ※입금시 "보궁 00(법명)"로 하시고 문자 바람.
전법교수	보궁선원장 수완나
수강문의	010-9176-7000
개 강 일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수료혜택	붓다자나 전법인증서 수여
수강장소	해인사 길상암 선인당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645-8(치인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신 간 안 내

김법혜 스님 칼럼집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
- 금과옥조로 삼아도 좋을 명칼럼 -



■ 크기 : 신국판 가로 152mm, 세로 225mm
■ 면수 : 306면
■ 가격 : 18,000원

칼럼니스트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께서 수년간 충청일보 충청산책 코너에 발표한 글을 모아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제호로 두 번째 칼럼집을 출간했다.

여러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 성실히 봉사하며 불가에 적을 둔 스님이자 유명 문사로서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으로 지역사회에 큰일을 해내시는 우리 사회의 사표로 그동안 심도있는 주제와 다양한 소재로 세상사를 두루 다루며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필치로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불의한 일에 경종을 울리며 지면에서 종횡무진으로 부조리를 난타하는 막힘없고 거침없는 필봉의 위세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글쓰기는 일련의 수도 과정과도 같은데 어떤 글을 쓰더라도 깊은 사고와 감정의 절제가 따르는 정중동의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신문칼럼은 우수한 문장력은 물론이고, 폭넓은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사실을 직시하여 분석해 내는 예리한 혜안이 있어야 한다.

칼럼집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는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사안을 족집게처럼 짚어가며 이야기를 개진해나가는 필력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삶의 경륜과 지혜가 문장 곳곳에서 묻어나는 유려한 문체에서 김법혜 의장의 필력을 가늠하게 되고, 공감가는 내용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이다.

글 행간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비심이 깃들어 있어 법고와도 같은 이 책을 곁에 두고 금과옥조로 삼아 부디 이 칼럼집이 독자로부터 사랑받고 널리 읽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사)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표중식

도서 구입 문의 • 엠뉴스출판부 • ☎ 041)903-3113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303 전원빌딩 401호

이안의 Media In Buddha ❸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한줄요약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는 다큐멘터리이면서 드라마, 호러, 복수 판타지 등 복합 장르적 영화이다. 의정부 기지촌 위안부인 박인순과 그의 동료들인 여러 꽃분이들의 영가에 대한 천도재와도 같은 수작이다.

국가폭력 스러진 영가, 정토에 이르려면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모든 빚이 다 그렇듯 글빚도 무거운 것이고, 약속한 날에는 보내야 하는 것인데 정토와는 거리가 먼 생지옥을 막지 못한 세상의 어른이라는 참담함과 자괴감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 무슨 영상과 미디어를 보고 무슨 글을 쓸 것인가?

아름다운 영화를 향기로운 말씀으로 전하려고 몇 편의 영화를 골라 놓고 아프고 무거운 영화를 뒤로 물려놓은 참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앳된 젊은이들이었다. 몇 겹으로 포개져 서로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라도 더 벗어나게 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영상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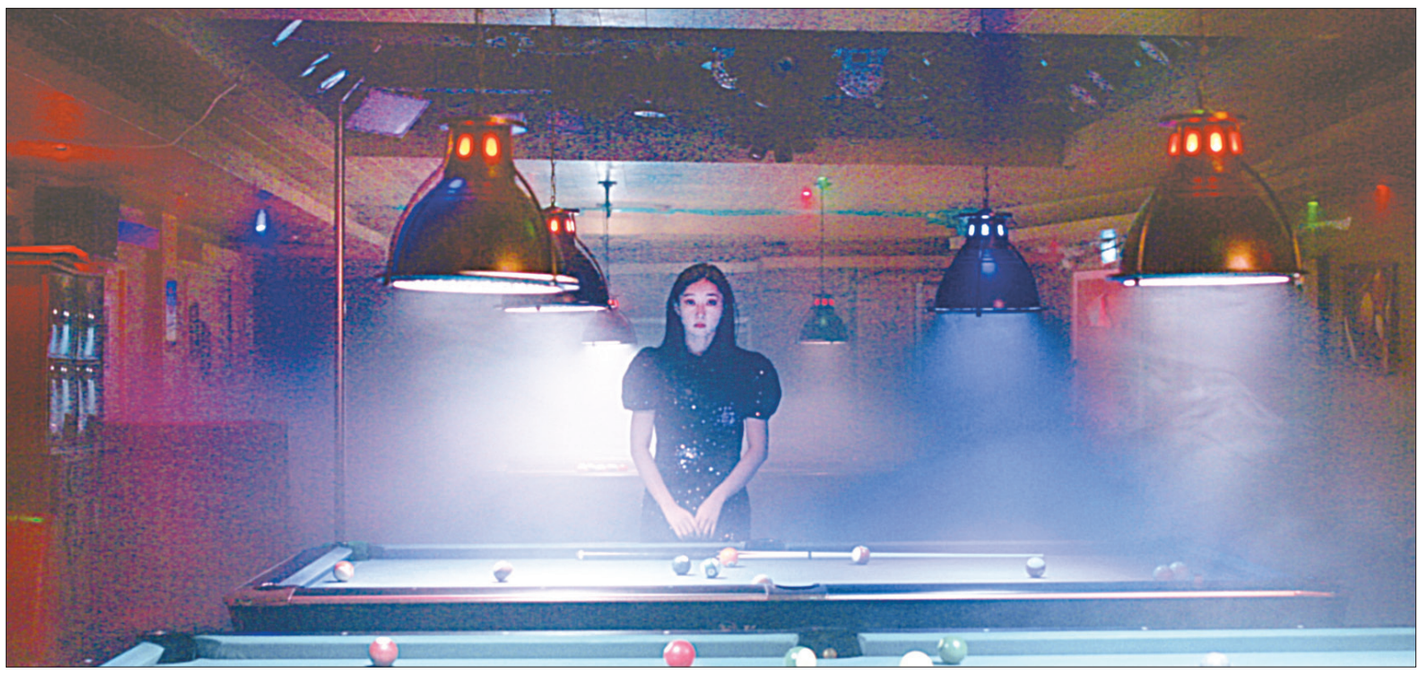
뉴스에서는 사망자가 2명이라고 했다. 부상자가 많아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서울시장이 급히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숨이 막혔다. 참사가 벌어졌구나. 좁은 골목 길바닥에 누워있는 청년들과 그들에게 숨이 돌아오게 하려는 사람들의 다급한 몸짓은 희생자가 2명에서 그치지 않으리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뉴스보다 빠르게 SNS와 유튜브에 현장 상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때 바로 그곳에 살았던 가족이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겁이 덜컥 났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전화를 걸었다. 무사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 동네에서 비명을 지르는 젊은이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젊은이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나라가 있기는 한 걸까?

청소년들이 정규 학사 일정인 수학여행을 가다 죽어도 교통사고라 하고, 청년들이 해마다 늘 열리는 축제에 갔다가 죽은 게 놀러 가서 당한 사고니 본인 탓이라고 하는 사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고,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 국가애도기간이니 원인을 따지지도 말고 책임을 묻지도 말라며 윽박지르는 나라에서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어떤 참혹함도 자비심으로 돌아보라는 부처님 말씀을 도대체 저 아차들 앞에서 무슨 영화 이야기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넋 놓고 있는데 알림이 울렸다. 이태원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었기에 10월 30일로 예정됐던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공연을 취소한다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온 전갈이었다.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을 기념해서 영상자료원이 특별히 기획한 영화와 음악, 낭독이 어우러지는 이 융복합 공연은 며칠 전 먼저 한 차례 있었고, 미리 그 공연을 보았었다.

영상자료원에서는 가끔 융복합 공연을 선보이곤 했다. 〈청춘의 십자로〉(1934년, 안종화 감독)나 〈이국정원〉(1958년, 전창근 감독) 같이 뒤늦게 발굴되어 손상도 심하고 사운드가 망실된 작품들의 영상을 복원해서 비어있는 사운드를 라이브 연주와 더빙으로 채우는 여러 장르가 함께 하는 융복합 공연이 필요한 경우였다.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의 한 장면.

사진제공=(주)시네마 달

그런데 2019년 작품인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는 무성 시대 복원 작품도 아닌 최근 작품으로 여러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으며 상영되고 있는데 굳이 왜 융복합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첫 회 공연을 미리 봤고, 그때 보지 못했으면 영영 보지 못했을 그 이야기가 이번 글의 인연이라 여겨져서 쓰려고 준비했던 글감들을 거두고 이 선문답 같은 제목의 영화 이야기를 힘들고 어렵게 전하고자 한다.

이 영화는 기록도 기억도 미치지 못하고, 재현도 표현도 담지 못하는, 이야기 되지 못한 이야기를 엮어, 이승과 저승,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이하고, 슬프고, 처참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사람 박인순과 그의 동료들인 여러 꽃분이들의 영가에 대한 천도재와도 같은 영화다.

2019년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관객을 만났을 때는 다큐멘터리로 분류됐으나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는 일이 쌓이면서 드라마,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 복수 판타지를 가로지르며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독특함 때문에 이제는 '오드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로 소개되고 있다.

오랫동안 미군부대 자리였던 의정부시 뺏벌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는 기지촌이라는 사라져 가는 공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던 김동령 감독과 박경태 감독이 공동 연출한 첫 영화 〈거미의 땅〉(2012) 이후 6년 만에 다시 함께 작업해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집행위원회특별상을 받기도 했고 극장 개봉에 이어 OTT 상영도 되고 있다.

> 의정부 뺏벌 기지촌 위안부 조명
> 다큐+드라마 등 복합 장르 秀作
> 이름 없이 잊혀진 사람들 추모해
> 참된 애도, 책임과 처벌 동반한다

그런데 영화 아카이빙을 책임지는 한국영상자료원이 굳이 이 영화를 '세계 시청각 유산'에 걸맞는 융복합 작품으로 무대에 올린 까닭은 더 발견할 것이 있고, 더 공감할 것이 있고,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더 물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더 풀어야 할 업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 모두가. 역사를 함께 한 공동체인 이 나라 전체가.

박경태 감독의 〈나와 부엉이〉(2003)부터 〈거미의 땅〉과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에 이르기까지 기지촌 위안부로 살아 온 현실의 자신으로 출연하고 있는 주인공 박인순은 마치 달마와도 같다. 부릅뜬 눈으로 뺏벌 이곳저곳을 오가는 인순은 꿈을 꾸지 않으려고 잠을 자지 않는다. 인순은 죽어서 새가 되고 싶다고 한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의 눈을 쪼기 위해서란다.

영화는 인순을 만나러 가서 '눈'으로 지은 업을 따라 간다. 자신이 몇 살인지,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주인공은 사실 '박인순'이 아니라 '박인순'인 척 살아야만 했던 무명씨다. 첫 기억이 한국전쟁 시기에 아버지 지게에 실려 내다버려진 것이고, 그 다음 기억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던 무렵에 서울역에서 배를 곯으며 사람들에게 매 맞다가 짜장면을 사주는 낯선 여자를 따라 뺏벌에 온 것이고, 그때까지는 아무 이름이 없었단다. 그러다가 초경을 하는 나이가 되자 기지촌 포주였던 짜장면 사준 여자가 동네에서 일찍 죽은 진짜 '박인순'으로 신분증을 위조해주면서 그 이름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 인순으로 살게 된 것이다.

'야' '거기' '너'로 불리던 이름 없는 아이가 여성의 자태를 띠게 되자 일을 해야 했다. 남의 이름으로 거짓 가족관계 안에 들어가 미군을 상대하면 할수록 빚이 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임신을 했고, 수많은 임신 중절도 겪었다. 몹시도 고통스러울 때 위로해주던 미군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간 적도 있고, 거기서 자식을 낳기도 했으나 한때의 위로보다 오래 지속된 폭력을 겪으며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억도 다 사라지고, 오직 가짜 이름의 고향인 '뺏벌'로 밖에 돌아갈 곳이 없어 자식도 기억도 버리고 기지촌으로 와서 살고 있단다.

이 영화는 합리적 언어로 인순의 이야기를 담으려다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 뺏벌의 영가들을 거두러 온 저승차사들이 아무리 데려가려 해도 데려갈 수 없도록 동료였던 꽃분이(들)의 영가를 마주치는 이야기들을 거쳐 성불할 수 없는 꽃분이들, 이승에도 이름이 없으니 명부에도 이름이 없어 천도할 수 없는 영가들을 위로한다.

실패하게 되는 합리적 언어는 먼저 다큐멘터리로 시작된다. 조선이 망하고도 아직 외척 세도가 파평 윤씨의 무덤이 있는 동네 아래에 있는 수락산 어귀에 있는 마을 뺏벌. 거기에 사는 인순을 국가폭력 희생자의 사례로써 기지촌 여성 생애사 연구를 하는 교수가 찾아온다. 그러나 글도 모르고 기억도 많이 잃고 자신의 삶을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인순의 내력은 생애사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패한다.

교수를 따라왔던 작가는 실패한 구술 대신 인순이 그린 그림들을 남들이 관심 갖기 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다시 찾는다. 인순을 만나지 못하고 폐허가 된 미군 상대 클럽 자리들을 기웃대다 들어간 어메이징 클럽에서 작품 소재 투성이라며 신나게 사진을 찍어대던 작가는 꽃분이의 영가가 나타나자 파평 윤씨 무덤이 있는 산등성이로 허겁지겁 달아난다.

이렇게 외부에서 온 타자들의 '이야기 만들기'가 실패한 뺏벌에 꽃분이를 데리러 저승차사들이 나타나면서 영화는 남들의 기록하기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인순과 꽃분이들의 내력을 보고 겪는 판타지로 바뀌게 된다.

낮에도 밤에도 잠들지 않고 부릅뜬 눈을 한 인순은 꽃분이를 데려가려는 저승차사를 직접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인순과 꽃분이들은 저승차사들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꽃분이들이 목을 매달았던 나무 아래로 데려가, 꽃분이들을 학대하고 살해했던 도깨비들에게로 이끈다. 우리들은 그 장면을 '눈'으로 본다. 마침내 우리는 가장 가혹하게 죽어간 꽃분이, '윤금이'의 모습을 보고야 만다.

이 꽃분이들을 제대로 천도하지 않으면 인순은 잠을 잘 수 없고, 저승차사들에게 그 영가들을 내주어서 잊혀지게 할 수도 없다. 복수는 판타지지만 희생은 현실이었다. 공식적인 국가폭력은 언어를 요구하지만 참된 애도는 책임과 처벌을 요구한다.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를 떠도는 이름 없는 영가들의 이야기를 옮기면서 다시금 이태원에서 죽어간 젊은 넋들의 영가들을 제대로 천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들은 '놀러 간 아무나'가 아니라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었다. 벗이고 희망이었다. 꿈이고 내일이었다. 함부로 '국가주도 애도'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책임을 묻는 일을, 잘못한 업의 인연을 따지는 일을 막지 말지어다. 이곳이 정토는 못되더라도 생지옥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영화평론가〉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⑩ 전쟁과 기후위기



▶한줄 요약
전쟁은 사람의 목숨과 사회경제를 모두 파괴한다. 이와 함께 많은 동식물들도 죽거나 멸종되며, 자연도 파괴된다. 군수사업들도 기후 위기의 주범이다.

‘STOP THE WAR’…지구 살리는 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4월 12일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스님들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주한러시아대사관까지 2.1km를 오체투지했다.

20세기 무력충돌 20% 기후변화 원인

지난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북한의 위협을 방지할 계획을 물어보자 그는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발언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한반도를 위기에 빠트릴 호전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말을 들은 북한은 “핵 보유국가에 ‘선재타격’ 운운하는 것은 천치바보”라고 비난하며 “선제타격 같은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한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다 최근 11월 3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한 · 미연합공군훈련에 반발해 전날인 2일에 4차례에 걸쳐 동 · 서해로 미사일 25발을 발사했고,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하고 나섰다.

최근까지 남한은 북한과 미국 등을 잘 조율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호전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남한의 24개의 핵발전소만 공격해도 가히 핵폭탄을 투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최근 우크라니아와 러시아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의 원자력발전소를 러시아군이 포격하여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위험을 보도되기도 했다.

2011년 3월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38만 명이 사망하고 1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독재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이 내전으로 비화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엄청난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2010년 여름 러시아를 강타한 폭염과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줄자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그로인해 러시아 밀을 주로 수입하는 시리아도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자 폭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오랜 권위주의 정부의 폭압과 ‘아랍의 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반정부 봉기로 커졌고, 내전으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자 각국에서 난민 수용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실제 미국 스텐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연구팀 캐서린 매치는 “20세기 전쟁과 무력충돌의 20%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극한기후로 인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21세기 들어 그 영향은 점점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채굴로 자원이 고갈되고, 화석연료의 소비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로 가뭄과 홍수, 해일 등 재해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고 국가간 갈등과 군사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전쟁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파괴한다

필자는 23년간의 전쟁이 끝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러 2001년 카불공항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마치 전쟁영화의 거대한 한 장면 같은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공항의 창문은 온통 깨어지거나 없고, 2층 계단과 난간이 부서져 내부에 아무 시설도 없었다. 공항에서 나오자 오른쪽에는 약 20~30여대의 부서진 비행기 잔해들이 700m가량 펼쳐져있었다. 시내로 들어가면 도로는 온통 포탄 자국으로 움푹 패어있고 차량이 지체되면 언제나 나타나는 꼬마들과 때에 찌든 부루카를 입고 구걸하는 여성들이 달려들었다. 내전 당시 살벌한 격전의 흔적이 흉물스럽게 서있는 모습은 카불 시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프간 전국의 도로양쪽에 매설된 지뢰로 군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들 할 것 없이 불구자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산과 들에는 전쟁과정에 시야확보를 이유로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 있었다. 사회 행정체계나 교육시스템은 붕괴됐고, 시내에 쓰레기들이 널려있고 들판을 뒹구는 포탄들과 탱크 잔해들이 널부러져 있다. 이런 상황에 환경오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대기,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다. 화학무기 사용과 독가스 살포, 등으로 나무와 초목도 파괴됐지만 수많은 야생생물도 모두 죽거나 멸종됐다.

전쟁, 가장 심각한 자연파괴

전쟁의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악화된다. 평등한 질서보다는 군사적 계급적 위계관계로 일사불란하게 재편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 어린이의 약자들의 인권에 심대한

인간, 사회 파괴하는 전쟁
동식물, 자연도 모두 절멸
韓기후 예산, 국방비 1/4
군비 증강, 기후 위기 원인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과부와 고아를 양산한다. 또한 전쟁은 평상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도 일순간 서로 살해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시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자연과 뭇 생명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괴하며 죽이고, 강력한 무기의 파괴력으로 풍부한 자연과 주거지역은 초토화돼 수백년 간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설, 건물, 집, 공장 등이 일순간 사라지게 한다.

또한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깊은 상처와 고통, 보이지 않는 적개심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분노를 끊임없이 재생산 해낸다. 오로지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일순간 그 사회를 집어삼킨다. 3년간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은 이후 60년 넘게 상호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켜왔다. 전쟁은 고향을 버리고 난민으로 유랑, 이주와 추방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전쟁은 긴급한 승리에 몰두하게 되어 인간과 자연, 다른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과거 모든 역사적 사회적 성과를 파괴하고, 현재를 파괴하며 희망의 미래를 파괴한다.

군사주의, 기후위기 원인이자 결과

2021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조 1000억 달러(약 2630조 원)이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파리협정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필요한 재원도 거의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이다. 전 세계에 전쟁준비와 핵무기 현대화와 군사기지를 만들고 군사훈련에 지출하는 그 액수의 돈이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인 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54조 6000억 원으로 GDP에서 2.8%이며, 세계 10위의 막강한 군사대국이다. 이 군사비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2조 원씩 늘어났다. 이에 비해 외교통일 예산은 이 국방예산의 1/10에 불과한 5.5조 원이다. 또한 2022년의 탄소중립예산은 불과 12조 원으로 국방비의 1/4도 미치지 못하며,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1995년 교토의정서에도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빠져있고 2016년 파리기후협정에도 빠져있다.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미국 브라운대학교 왓슨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부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900만 미터톤으로 ‘단일조직으로는 세계최대의 석유소비자이며, 세계 55위의 온실가스 배출당사자로 평가되고 있다. 군용 차량, 탱크, 전투기, 수송기 등은 일반 차량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고 디젤소비가 많아 승용차 보다 5~50배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군사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하는 이유이다.

지난 7월 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20조 원 규모의 군수품을 수출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것을 좋아해야할까? 군수산업은 죽음의 산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군수판매상들은 전쟁이 날수록 이익을 보는 집단이다. 그래서 미국의 군산복합체 기업들은 지구상에 평화보다 끊임없이 전쟁을 유발시키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평화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엄청난 희생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공격명령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건은 21세기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면전이다. 개전 직후에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며칠 못 버티고 항복하거나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전의지로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교적 해결책보다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며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러시아의 국민들은 죽거나 다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 당연히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를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7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된 적이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미국의 트럼프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배제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남북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면서 남북 간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를 급격하게 평화적 분위기로 되돌린 사례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것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제1세계와 제2세계 간의 비공식적인 대리전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의한 고의적 원전 사고 가능성,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및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전쟁과 군비경쟁은 결국 진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물론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 등에 써야 할 자원과 예산을 군사비로 낭비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무력충돌, 안보 불안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우리는 군수품 수출보다 남북한의 종전선언을 유도해 평화를 만드는 일에 투자해야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긴장은 절대 군사적 대결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처럼, 시리아에서 10년 넘게 진행되는 내전처럼, 설령 이긴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도 희생되지만 자연도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루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청빈한 스님들에게는!
마이크 하나만 바꾸셔도 법당 소리가
놀랍게 달라지는 마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 소개법 : 전화 하시면 귀 사찰 부근을 지날 때 겸사겸사 들러서 마이크소리 비교 테스트!
마이크소리 테스트 비용 : 한잔
3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및 마이크만 바꿈도 2천여 사찰!
▣ 본품은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시설상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각종 “재” 전문 무선시스템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생명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혈자리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형식적인 혈자리들을 죽어라 익히고 그 자리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침술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완전 초보자분이라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지도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불교의 근본 대승에 있어
〈大乘〉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㊷ 대승(大乘)

〈원문〉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바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해 보라." 승만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곧 마하연(摩訶衍 : 대승)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마하연은 온갖 성문(聲聞)과 연각(緣覺)과 세간 선법과 출세간 선법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아뇩지(阿耨池) 큰 못에서 여덟 개의 큰 강이 흘러나오듯이, 마하연에서도 온갖 성문과 연각과 세간 선법과 출세간 선법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또 마치 온갖 씨앗이 모두 땅을 의지하여 싹이 나서 자라듯이, 온갖 성문과 연각과 세간 선법과 출세간 선법이 대승을 의지하여 자랍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대승에 머물러 대승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곧 이승(二乘)에 머물러 이승과 세간 선법과 출세간 선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존께서 여섯 가지 육처(六處)를 말씀하심과 같사오니, 육처란 것은, 바른 법이 머무는 것, 바른 법이 없어지는 것,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비니(比尼), 출가,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것들입니다. 대승을 위하여 육처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법이 머문다는 것은 대승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므로 대승이 머무는 것이 곧 정법이 머무는 것이며, 정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대승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므로 대승이 없어지는 것이 곧 정법이 없어지는 것이며, 바라제목차와 비니의 두 가지 뜻은 한 가지면서 이름만 다른 것이니, 비니라는 것은 곧 대승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을 의지하여 출가하였고, 그리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므로 대승의 위의(威儀)인 계가 곧 비니이며 출가며 구족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설〉 부처님의 권고에 의해 승만 부인이 다시 정법의 수승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마하연은 마하야나(mahayana)를 음사한 말로 대승(大乘)이란 말의 어원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마하야나가 바로 중생의 마음이라고 밝힌 말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본래 마음이 대승이라는 것이다. 이 대승이 세간법 출세간법의 모든 법을 거두어들인다고 기신론에서도 말하고 있다. 땅에서 온갖 종류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듯이 이승법이나 세간법, 출세간법이 대승을 의지해 자란다 하였다. 물론 부처님의 법 자체에는 대승이니 소승이니 성문이니 연각이니 하는 것이 없다. 다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구별돼 나눠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에는 고하(高下)가 없으나 사람에 따라 고하가 있다는 말이다.

아뇩지는 인도 고대의 전설상의 큰 못으로 설산 속에 있다는 못이다. 여기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와 강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정법인 대승이 일체 2승과 세간 출세간법을 내는 것이 아뇩지의 물이 흘러나와 여러 개의 강이 되고, 땅이 일체 씨앗의 싹을 트게 하여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불교를 부파에 따라 구분하는 이름이 다르게 있고 종파에 따라 구분하는 이름들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 구분하여 초기, 중기, 후기 불교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불교의 근본은 대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육처 가운데 비구 비구니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원래 구족(具足)이란 말은 범어 우파삼파다(upasampada)를 번역한 말로 열반에 가까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출가를 하러 온 제자들에게 "잘 왔노라. 비구여!(善來比丘)"하면 출가가 이루어져 비구의 신분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 북방권에서는 비구 · 비구니계를 구족계라 하여 이 계를 받아야만 비구, 비구니 계품(戒品)이 이루어져 수행자의 신분이 갖춰지므로 구족계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에서 정과 혜로 이어져 결국 계 · 정 · 혜(戒定慧) 삼학의 정신이 대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선정 · 삼매수행 위해선 스승 있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㊺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둘째는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복과 음식[衣食]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복과 음식을 지혜롭게 갖추어야 합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위해 옷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옷이 너무 없어서 추위에 몸을 떨게 해서도 안 됩니다. 수행자는 보통 3벌의 옷을 갖추어 입습니다.

올바른 수행을 위해 음식에 대한 인연도 지혜롭게 잘 갖추어야 합니다. 탁하고 상한 나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무 화기(火氣) 북돋우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옛말에 "뱃가죽이 늘어나면, 눈가죽이 늘어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만큼 잠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선과 선정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밥을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굶주려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양이 위장의 70%가 넘지 않도록 줄여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단식이나 금식 같은 것은 참선이나 선정수행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참선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정 삼매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숙달된 수행자라면 배고픈 것을 잊고 수행에 임할 수가 있겠지만, 초심자나 보통 수행자는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너무 일어나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식이나 금식은 참선과 선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참선하는 공간, 즉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두타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나 닭이나 염소 등의 가축들을 방목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모든 흐트러짐과 시끄러움이 없는 한적한 청정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불자들이 비록 자기 집에서 참선을 할지라도 참선하는 곳은 참선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는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모든 인연(諸緣)을 버려야 합니다. 선정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의 모든 잡다한 용무를 그만두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하는 등의 주변 용무를 그만두고 속인이나 친구, 친지 등을 찾아다니는 등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잡한 반연(攀緣)을 모두 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승을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선정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지식(善知識, 스승)을 항상 가까이해야 합니다. 선지식에는 3종류의 선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곁에서 외호해 주는 선지식입니다. 둘째는 나와 같이 함께 수행하는 도반 선지식입니다. 셋째는 나를 지도해 주는 교수 선지식입니다. 만약 스승이나 선지식 없이 혼자서 참선하거나, 책을 통해 독학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독살이를 하며 수행을 하면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행 중간 중간을 명안종사 선지식으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올바른 참선을 이루기는커녕, 외도 선으로 빠지거나 마구니에 빠져서 평생의 공부를 망쳐버리고 건강을 잃고 폐인이 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이 참선을 할 때 유튜브나 책을 통해 혼자 독학으로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자들은 스승 없이 혼자 참선수행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참선을 경험한 선사나 명안종사나 선지식들을 찾아서 먼저 묻고 배우고 익혀서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㊷ 마간디야의 경 1

분별심 버리는 것이 귀의
〈歸依〉

"존자 고따마여, 그 불은 지금만 닿으면 괴로운 것으로 커다란 열기, 커다란 타는 듯한 고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닿으면 괴로운 것으로 커다란 열기, 커다란 타는 듯한 고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존자 고따마여, 그 나병환자는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들어가고, 벌레에 먹혀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의 구멍이 할퀴어져서, 모든 감각능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실제로 닿으면 괴로울 텐데 즐겁다고 느끼는 거꾸로 된 지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귀의(歸依)합니다.' 이 문장을 많이 듣고, 말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귀의하는 데 무슨 뜻을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귀의'는 수행을 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만들어 나중에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귀의를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자신이 '나'라고 하는 오온은 무명에 빠져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바로 알아야 한다. 이때 모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어야 하며 조금도 무엇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분별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천이 어려운 것은 믿지 못하는 의심 때문이다. 이 의심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이나 경험에서 일어난 옳음을 가지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른 진리를 들음에 장애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이해된다. 오온이 지금 전도몽상이 되어 어떤 현상과 소리에 나타난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서 받아들여야 한다.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온에게서 일어나는 올바르지 않은 분별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면, 지금까지 '나[我]'라고 알고 있는 느낌이 얼마나 거꾸로 된 지각인지를 알 수 있다.

법회 때마다 마지막에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나[我]'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경이다. 260자의 말씀 중에 모든 구절이 중요하지만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이라는 구절은 언어의 번역보다는 뜻을 잘 번역하여야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곡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일반적인 번역은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다.'이다.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무엇인가를 떠나면 열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번역이 주는 오류를 바르게 아는 것은 앎이 없으면 쉽지 않다. 수행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은 번역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적인 번역은 글을 배우면 가능하지만, 글의 함의(含意)를 해석하는 일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지견이 생긴 것이지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 조사들도 "지견이 마구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번역 그대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번역이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 다르다면, 번역은 무의미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원리(遠離)는 '멀리 떠난다'는 사전적 의미는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나[我]다, 나[我]의 것이다, 나[我]의 자아다'라고 여겨 다시 떠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리(遠離)를 '무엇이 내가 될 수 없다'로 번역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뒷부분을 번역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전도몽상이 되어 있는 오온이 내가 될 수 없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때, 본래로 닦을 필요 없는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증명된다. 만약 어떤 행위의 주체가 존재하게 되면 '돈오돈수'라는 원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본래성품 자체가 돈오돈수이지 무엇을 닦아 돈오돈수가 되는 것은 아니네.
행위를 주체로 삼고 있는 오온을 '나'라고 한다면,
말로는 돈오돈수라 하고 행위는 돈오점수를 닦는 꼴이니
어찌 계합할 날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사)여시아문 선원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11호 | 17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1주일에 1회 개별 책임교육
◈ 불교 비급전수
◈ 3주후부터 상담가능

정 광 합장
(동국대 대학원 석사졸업)

전화 010-3936-2295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행자 하실 분
모십니다.

010-2078-9595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관 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 상담문의 ▣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공양주 모십니다

■ 영산법화사 홈피 : http://ysbuphwasa.org/
■ 영산법화사 소개 :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입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2장, 기본증명서 1통
■ 4대보험 가입 월급 195만원 ~ 250까지 (월 휴무 2일) 출퇴근도 가능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16 영산법화사
■ 상담 문의 : 02)762-4922 / 담당 총무 도엽 010-8737-2766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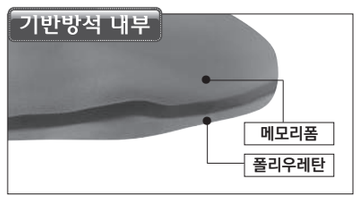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교보문고 및 인터넷도서 절찬 판매중 !!!

전생에 어떤 동물로 살았나

정원욱 지음

성불로 가는 기도와 기공법 / 웰빙 생식 장수법



사람들은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생에 어떤 동물로 살았는지 먼저 알고 난 후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장단점, 재능과 건강상태에 맞춰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전생에 동물의 업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일수록 해당 동물과 같은 기질과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동물과 닮은 전생의 업을 소멸시켜야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인간다운 품성으로 후회없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판매처

교보문고, 영광도서, 예스24, 쿠팡, 알라딘, 위메프, 인터파크도서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1호 | 18 | 전면광고

세간의 악들이 치성한 후에 악한 행이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한 행이 다하여 진실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 가전제품 보시 •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6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 스님 노환으로 급 양도
- 시내 인접, 집기 무료 제공
-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찰(3,4복층)안내

- 위치 : 김해시 내외로11번길 3-19
- 3층 : 넓은 법당(옥향로, 촛대, 공양기) 시설완벽, 스님방, 넓은주방, 화장실
- 4층 : 아주 큰방1, 작은방2(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시설비 일체 : 1천5백만원
- 비품 일체(5백만원상당) 무료제공
- 스님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010-5458-29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7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2백만원 (2개월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5511-70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소재
- 대지 1600평
- 건평 100평(대웅전, 요사채, 사무실)
- 산세 수려한 청정지역
- 주차장 완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월출산 절터 안내

① 위치 :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40, (답 197평), 21년 10월 진입로 포장(폭4m) : 건축가능, 연중 마르지않는 산 샘 : 단독사용
② 남산리내(전512평) : 청정계곡, 주변마을 없음
③ 합계 : 5천만원

010-3921-75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사찰·암자안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5억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5년간 분할상환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010-9647-0723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836번지 약 300평
- 4년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 절터, 산소자리 적합
- 3천5백만원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3억원

010-4835-17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 명학시장 2층 약 50평
- 삼존불 봉안, 시설비 없음
- 법당, 주방, 침실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협의가능

010-5495-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 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령1동211-164(62-2) (마산 제일 여고 뒤)
- 임야(자연녹지)1800평, 대지 60평, 전(땅)120평, 법당 20평, 요사채
- 가액 : 3억5천만원

010-8762-9870
010-9978-5453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6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소재
- 대지 : 160평
  건평 : 30평
- 산세 수려한 청정지역
- 가액 : 1억8천만원

010-3423-7181

명 당 안 내

- 암자, 명상원, 산속찻집, 문화원으로 적합함
- 청학골 전설의 두계곡 물이 합수하여 정원수가 됨(해발 200여m) 100여m 청석 반석으로 물이 감아 흐름
- 723평, 평당 30만원

010-8637-3872

148기 철학수련생 모집

◈ 자격 : 주지스님 및 비구, 비구니, 거사, 처사, 불보살
◈ 달마대사의 사주비전과 만세력세계를 집필하신 선사께서 직강 및 개인지도

예약문의 02-451-2040
051-301-4949
010-5301-4949

포교원 공간 임대 주실분 모집
010-4466-4804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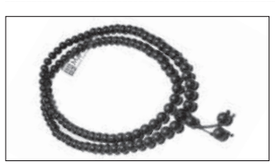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㉑ 서울 강북구 화계사 구절초

이름 몰라도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화계사 이름을 처음 들은 건 1998년 TV 다큐멘터리 '만행'을 보았을 때였다. 관심을 두었던 건 벽안(碧眼)의 스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직업의식의 발동이었는데, 실제로 섭외에 성공한 출판사는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제목으로 대박을 쳤다.

현각 스님은 숭산 스님과의 인연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처음 만났을 때 스님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 이름은 폴' 이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그건 당신 몸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싶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죠. 스님이 주셨던 '오직 모를 뿐(Only Don' t Know)' 이라는 가르침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선문답이 식물 세계에서는 통용되기 어렵다. 식물학자들은 같은 종(種)이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해나간다. 그 가운데 가을만 되면 들국화 때문에 놀림을 당할 수 있다. 안도현 시인이 '무식한 놈' 이라는 시에서 "쑥부쟁이와 구절초를/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이들길 여태 걸어왔다니/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라고 읊은 내용 때문이다.

토종 들국화 종류인 구절초와 쑥부쟁이는 꽃 말고 그 아래 잎을 보면 구분이 쉽다. 구절초는 잎이 쑥과 비슷하고, 쑥부쟁이는 잎이 작고 톱니가 있다. 물론 꽃의 색으로도 분간할 수 있다. 희거나 연분홍을 띠면 구절초이고, 연보라면 쑥부쟁이이다. 이를 구별 못 하면 졸지에 무식한 놈이 되니 신경 써서 살펴야 하는데, 쪼그리고 앉아 꽃 아래를 살피는 노력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그냥 예쁜 꽃이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모를 뿐, 마음만 참구하면 좋을 텐데, '삼각산화계사' 일주문 현판을 마주하니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삼각산은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세 봉우리가 뿔 모양을 하고 있어 부르는 것인데, 지금은 북한산으로 공식 표기하고 있다. 이를 모르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구절초가 가득한 화계사 경내.

삼각산의 이름은 〈고려사〉 등의 기록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고려시대에 '삼각산' 이란 이름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고려 광종(949~975) 때 보덕암으로 시작했다는 기록이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조선 중종 17년(1522)에 신월 선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짓고 화계사(華溪寺)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꽃도 계곡도 절도 아름답다는 이름을 가진 화계사는 이후 광해군 10년(1618)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흥선대원군의 시주를 받아 대방과 요사채를 중수하였다는 기록에서, 그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수령 4백년 넘은 느티나무에 눈길이 가는 것도 물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 고양군 북한산 유적조사 보고서' 에 삼각산 대신 북한산 명칭을 쓴 이후부터 북한산이 등장했고,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숭산 스님이 겹쳐졌다. 하지만 1983년 도봉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으로 지정되면서 북한산이 공식화되었다는 자료에 다다르자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된다. '삼각산화계사' , '북한산화계사' , 그 호명의 간극에서 파생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본래 형상이 아닌 것을 알려 곧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된다)."

[광우스님의 화계사 특별 법문2]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의 생애 전법포교에 혼신을 다하다' 를 보니, 숭산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위의 〈금강경〉 구절을 접하고는 구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형상에 우리가 붙인 이름에 대한 궁금증은 범종각을 지나 대웅전과 명부전으로 향하는 계단에서도 죽지 않는다. 흰 화분에 수북하게 담겨 있는 서양국화가 포트멈인지 가든멈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눈길을 주는데, 경내를 도는 동안 계곡 쪽 은행나무 아래에 빛나게 피어 있는 구절초를 보며 이곳이 한국 선원임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구절초인지 쑥부쟁인지 두 이름의 혼돈 속에 꽃을 보는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는 2018년에 형상을 갖춘 미륵석불전 앞에 서서 굽어보는데, 발밑 구절초가 태양 아래 눈부시게 웃고 있는 것 같다.

구절초(九節草)는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채취한 꽃잎으로 국화주를 담가 먹으면 몸에 좋고, 같은 날 자른 꽃과 줄기를 약재로 이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한다. 국가표준식물목록을 보면, 바위구절초, 포천구절초, 한라구절초 등 11개의 구절초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자생지, 발생지에 따라 앞 이름이 정해진다고 하니 발길 닿는 데마다 다른 호명이 튀어나와야 한다. 살짝 성가신 것 같다.

"걱정 말아라. 광명은 영원하고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를 뿐이다."

숭산 스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란다. 산과 물이 만드는 식물들의 이름, 꼭 몰라도 되는 것 같아 감사를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⑳ 나희덕의 '어떤 출토'

내 삶의 사리를 찾아

〈舍利〉

어떤 출토(出土)/ 나희덕

고추밭을 걸어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 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훔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

가을갈이를 하려고 밭에 다시 가보니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
불꽃도 흙 속에 잦아든 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 웅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

–나희덕 시집, 〈사라진 손바닥〉, 문학과지성사, 2004–

아~, 그것도 사리(舍利)구나. 그렇게도 사리가 나오는구나. 출토되는구나. 아~, 그런 사리를 그렇게 발견하고, 찾아내고, 출토해낼 줄 아는 나희덕 시안(詩眼)이 눈부시구나. 혜안이 빛나구나. 이미 법안(法眼)이구나.

이 시를 처음 만난 순간 필자는 숨어 턱 막혔다. 늙은 호박이 쭈글쭈글 말라가는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하고, 온갖 벌레들에게 다디단 속살을 다 빨리고,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 늙은 호박 밑에 남아 있는 호박씨들을 보며 "한 웅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로 치환해서 환유(換喩)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필자는 불멸의 화엄(華嚴)과 함께 '충만한 모성애' (불교적 자비와 자애)를 느꼈던 것이다.

필자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한 대목은 2연 마지막 두 행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였다. 그건 풍장(風葬)이었다. 진정한 풍장이라면 과연, 이런 풍장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세상 온갖 중생(벌레)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은 "둥근 사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化身)이었다. "늙은 호박"(부처님의 육신)에 의지하며 살았을 수많은 생명("온갖 벌레들")과 그 생명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고("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살다, "종잇장처럼 땅에 엎드려" "관뚜껑"이 되어버린 늙은 호박의 최후의 모습은 부처님의 자비와 자애와 화엄의 모성애로 충만하다.

나희덕 시인의 이 같은 불교적(혹은 화엄적) 사유(모성애)는 다양한 변주로 중생(독자)들을 따스하게 품어준다.

"먼 길 가는 모양이다/ 동네 어귀 느티나무 그늘 아래/ 어떤 부부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조금은 엉거주춤하게 떨어져 선 두 사람은/ 목도리가 같아서인지 한눈에 부부 같다/ 지아비가 한 손을 올린 채 앞으로 나와 있고/ 지어미는 조금 뒤에서 웃고 있다/ 시골버스의 유일한 승객인 나는/ 그 부부를 발견하고 내심 반다웠지만/ 운전기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치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늘 거기 서 있으면서도/ 한 번도 탄 적이 없었다는 듯이/ 아아, 버스로는 이를 수 없는 먼 길을 가는 모양이다/ 그 부부는 이미 오랜 길을 걸어 거기 당도했을 것이고/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갈하게 풀을 먹인 광목 목도리는/ 누가 둘러주고 간 것일까/ 목도리에 땀을 닦고 있을 그들을 뒤돌아보니/ 미륵 한 쌍이 석양 속으로 사라진다/ 두 개의 점, 흰 광목빛" -나희덕 시집 〈어두워진다는 것〉(창작과비평사, 2001) 중 '흰 광목빛' 전문

어느 날 나희덕 시인은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도로 가에 돌장승(혹은 나무 장승)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외롭게 버스를 타고 가던 나 시인은 그들이 버스를 탈 손님인 줄 알고 반가웠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체만체 지나쳐 버린다. 그때 깨달았다, 나 시인은. 그들이 이미 오랜 길을 걸어 거기 당도한 사람(장승)들이었음을. 아니 "버스로는 (감히) 이를 수 없는 먼 길을 가는" 사람(장승)들임을. 그리고 그들이 "미륵" "한 쌍"(부부)이었음을. 이 땅의 수많은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였음을.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누군가가 "정갈하게 풀을 먹인 광목 목도리"를 둘러주고 간 것은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자식들이었음을. 아니 어쩜 그 광목 목도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직접 정갈하게 풀을 먹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었으므로. 비단과 모피 대신 정갈하게 풀 먹인 목도리를 두르던 것이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의 방식이자 정신이자 태도였던 것이다.

'사라진 손바닥' (시집 제목이기도 함)은 나희덕 시인의 그런 불교적 사유와 서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처음엔 흰 연꽃 열어 보이더니/ 다음엔 빈 손바닥만 푸르게 흔들더니/ 그 다음엔 더운 연밥 한 그릇 들고 서 있더니/ 이제는 마른 손목마저 꺾인 채/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네/ 수많은 창(槍)을 가슴에 꽂고 연못은/ 거대한 폐선처럼 가라앉고 있네// 바닥에 처박혀 그는 무엇을 하나/ 말 건네려 해도/ 〈중략〉 백 년쯤 지나 다시 오면/ 그가 지은 연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빈 손이라도 잡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흰 꽃도 볼 수 있으려나// 회산에 회산에 다시 온다면"

나 시인의 '사라진 손바닥' 부분이다. 마지막 연 "회산"은 전남 무안의 '회산 백련지' 이다. 회산 백련지는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백련이 만개할 때쯤이면 전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몰려든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 나희덕 시인처럼 그 백련 속에서 '불교' 를 보고 '부처님의 손바닥' 을 보고, '빈 삶' 을 보고, 무유정법((無有定法)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발견해내는 이가 얼마나 될까. 정말, 나 시인의 시안과 혜안과 법안을 제대로 증명해주는 시다. 특히 1연 마지막 두 행 "수많은 창(槍)을 가슴에 꽂고 연못은/ 거대한 폐선처럼 가라앉고 있네"는 이 시의 압권 중 압권이다. 이 시 속에는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와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가 다 들어 있다. 옛사랑의 모습도 들어 있다. 그래서 더 찬란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시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심장·간질환 발병 한달…
생사기로에 선 미얀마 청년

미얀마에서 온 묘민우씨 올해 8월부터 프레스공장에서 근무
심장 수술에 신장기능 50%남아 약물 치료…병원비만 1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⑪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 2



▶한줄요약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감당해야 할 슬픔은 인간이 살면서 겪어내야 할 당연한 감정 중 하나, 받아들이는 순간 극복의 길이 열린다.

"죽음은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기사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한다. 자연재해, 전쟁,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사고, 범죄, 자살 등으로 개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타인의 죽음관련 기사를 보고 오열하지는 않는다. 죽음에 관한 기사들이 스마트폰이나 TV에 나오면 무심히 화면을 넘길 뿐이다.

그러나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이의 일이 되면 다른 문제가 된다. 기사에 보이는 남의 죽음은 손가락으로 넘겨져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가족이 위급한 상태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우리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을까. 죽음이 사랑하는 이것이 되면 어떨까. 사실 매일의 기사에 등장하는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츠'(Vladimir Jankél-évitch, 1903-1985)는 그의 저서 〈죽음에 대하여-La mort〉에서 죽음을 1인칭, 2인칭, 3인칭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았다.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당신', 3인칭은 '그, 그녀, 그것'을 뜻하며 장켈레비츠의 관점에서 보면 1인칭 죽음은 '나의 죽음'이며, 2인칭 죽음은 '너의 죽음', 3인칭 죽음은 '익명적인 타인의 죽음'이다.

1인칭, 즉 '나의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음이 나의 것이 된 것을 뜻하며 2인칭, '너의 죽음'은 '너, 당신, 그대'로 지칭 될 수 있는 가까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3인칭 죽음은 나와는 별다른 관계없는 매일의 기사로 보여지는 타인의 죽음, 즉 '남의 죽음'을 뜻한다.

'나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이데거, 야스퍼스, 레비나스, 들뢰즈 같은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언급했는데 장켈레비츠 또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죽음을 타인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나'의 죽음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고 알려 줄 수 없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의 죽음'은 내가 죽기 전까지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장켈레비치는 특히 2인칭 죽음을 강조했다. 2인칭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며 또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타인의 죽음도 아니다. 죽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나는 계속 살아있다.

하지만 그가 죽어가는 것, 그가 죽은 것을 보게 된다. '너' 즉, 사랑하는 이들,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친구, 반려동물 등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죽음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에게도 언젠가 다가올 사건으로 깨닫기 시작한다.

사실 죽음에 관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그렇다. 전공이 죽음이긴 하지만 죽음이 나와 가깝다고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 혹한기 날씨처럼 죽음을 '체감'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한부 환자 혹은 그들의 가족들처럼 죽음이 거의 정해진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 '실감'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다.



가족 · 반려동물 죽음 속서
2인칭으로 '죽음' 간접체험

부처님의 겨자씨 대기설법
'모든 생명, 반드시 죽는다'

반려동물 안락사 경우처럼
가족의 죽음서 '정념' 필요

경전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례를 종종 다룬다. 여러 사례들 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법구경〉(Dhammapada)의 끼사고따미(Kisagotami)에 관한 일화가 있다. 부처님께서 사왓띠(Sāvatthi)의 제따(Jeta) 숲에 계실 때였다. 이곳에는 어떤 부호와 결혼한 끼싸고따미라는 여성이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겨우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다.

그녀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죽은 아들을 안고서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약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당신이 찾아보아야 할 사람은 붓다인 것 같다고 말하자 고따미는 제따와나 선원(Jetavana vihara)에 머물고 계시는 붓다를 찾아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붓다는 "여인이여. 그대는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 씨 한 줌을 얻어오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이후 고따미는 겨자씨를 얻기 위해 수 많은 집들을 방문해 가족 중 죽은 사람이 없냐고 묻고 다녔으나 결국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없었다. 고따미는 다시 붓다를 찾아갔고, 붓다께서는 "고따미여, 그대는 당신만이 아들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붓다의 설법을 통해 그녀는 인간 죽음의 필연성을 깨달았고 이후 수행자가 되어 수다원(須陀洹, sotāpanna)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고따미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필연성을 자각했지만 이미 겨자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도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세상에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진정시키는 특정한 마음의 태도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수용(acceptance)' 즉, 받아들임의 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삶의 가장 큰 시련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 다시 말해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경험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러 매체나 자료를 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것만 봐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전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졌고 개나 고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생명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에 따 따른 상실의 고통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70세지만 반려동물의 수명은 평균 12년이다. 따라서 반려인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일원이었던 반려동물이 죽거나 실종되면 한동안 충격과 슬픔 탓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심한 경우 그러한 상실감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반려동물과 애착 관계가 강했던 사람일수록 그에 따른 고통도 클 것이다. 어떤 면에서 반려동물은 사람과는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주고 깊은 애정을 준다. 반려동물의 상실은 사실상 가족을 잃은 슬픔과 유사한 정서적 고통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사별과 유사하게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 이후의 고통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 또한 여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했고 또한 무지개 다리를 건네 준 경험이 있다. 동물이 죽고 난 뒤 한동안 그들이 없는 빈집, 밥그릇, 물그릇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인 적이 있었다.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더욱 괴로울 수 있다. 때로는 안락사를 선택할 순간에 놓일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한 생명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동물 호스피스 전문가 리타 레이놀즈는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에서 말기 암 혹은 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에는 안락사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권유한다.

많은 반려인들이 자연사를 원하지만 큰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에게 자연사는 오히려 잔인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안락사를 택하게 된다면 레이놀즈는 반려인이 "제발 날 두고 가지마. 너 없이는 못 살아"란 말보다는 "괜찮아. 이제 가도 돼. 널 지켜보고, 덜 힘들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태도를 가지라고 권한다. 이러한 태도는 동물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근대기 정토불교의 고승인 인광(印光)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할 점은 임종자의 마음에 한(恨)이나 애착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 곁에서 흐느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唐)의 승려인 선도(善導)는 〈임종정념결(臨終正念訣)〉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숨이 끝나려 할 때 가족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거나 비탄, 한탄하는 소리로 병자의 심신을 어지럽게 하여 정념(正念)을 잃지 않게 하라. 오직 아미타불을 염하도록 가르치고 일시에 고성으로 자기를 위해 염불하도록 계속하고 기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가 소진되면 울도록 하라."

지난 연재에서 언급했듯이 임종시 정념(正念)의 유지는 극락왕생의 요건이다. 왜냐하면 일심불란(一心不亂)한 마음으로 염불해야 왕생이 가능하다. 만약 목숨이 끊어지려는 찰나에 정신이 혼미하여 생각이 어그러지면 정념을 잃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임종자 주변의 사람들은 슬픔으로 임종자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죽음으로 떠나 보내지는 않지만, 자식을 군대를 보내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보내기 싫다고 하는 태도와 웃으면서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태도 중 어떤 것이 집을 떠나는 사람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인가?

누군가가 떠나고 난 뒤 느끼는 슬픔은 오로지 남은 자의 몫이다. 그러나 슬픔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세상에는 상실의 고통을 겪고 슬퍼하는 수억 명의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감당해야 할 슬픔은 인간이 살면서 겪어내야 할 당연한 감정 중 하나일 것이다.

사랑하던 존재들이 떠난 뒤 그들의 유품을 정리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슬픔에만 갇혀 있는 태도는 내가 사랑하던 이들의 죽음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죽음에 대한 비수용적 태도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질환 혹은 비극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연이 되어 만나 사랑했고 때가 되어서 떠나갈 때 그들을 잘 보내주는 것도 사랑했던 이들에 대한 예의이자 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놓아줄 수 있는 힘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오롯이 '수용' 즉, 받아들이는 순간 생겨날 것이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금강경한문 + 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항상 마음을 중도에다 두고 중심을 지키면서 공부해 나가세요

부처님 법을 부처님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해서 가르치신 그 뜻은 너무나 크고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행동과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만약에 기복으로 한데로 떨어뜨린다면 그 묘한 이치와 무한의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에 세계적으로 퍼지고 퍼져서 또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또 퍼지고 하는 이 이치,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멸했다 하고 반복되는 진리지마는 이 속에는 여러분이 겪어 보지 않고 실감해 보지 못한 뜻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많은 법과 더불어 무서운 도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알면 너무나 좋고 자비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홀로이 우뚝 선 뜻이지마는, 모른다 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치 속에서 여러분은 구르고 아픔을 받아야 하고 피를 삼켜야 하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주적으로도 그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임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공부를 해서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바로 네 주장자를 내가 뺏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하는 건 '이 도리를 모르면' 하는 소리로서, 자기 각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없다면 빈집이나 한가지가 돼서 누구를 막론해 놓고 들락날락해도 그건 빈집이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몸으로 비유한다면 세포를 뚫고 어느 고장에 문이 없이 들락날락, 눈으로도 귀로도 이 세포로도 천만 가지의 문이 그렇게 많은 대로 갖가지 형상을 하고 갖가지 모습을 가지고 갖가지의 행을, 악조건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내 집을 마음대로 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디서 오는지, 뺏기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항상 끄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무체의 신은 선신이라고 하고 악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안에도 역시 사람으로 살던 악령이라든가 선령,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도리를 몰라서 주장자가 없고 바깥으로 기복으로만 찾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요것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깡패가 애들을 데려가면 깡패 짓을 가르치지만 선한 사람들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났으면 올바르게 이끌어 주고 선량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 형상 없는 악한 마음, 즉 악령은 악령대로 시시각각으로 바꾸어 가면서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서 '아, 이건 조상이 이러나 보다.' 이럭하게 만들고 '아, 이건 부처님이 이러신가 보다. 그럼 정성을 들여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해 주고, 헝겊 하나만 들여도 그 집안이 난리가 나게 만들고, 그 집안에 떡을 좀 해 먹어도 난리가 나게 만들고 일일이, 건건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서슴지 않고 사람의 혼백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그러한 악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악령들은 자기가 악령으로서 억겁을 돈다 하더라도 그 억겁을 악조건으로 해서, 자기가 잘못하기 때문에 선령으로서, 인간으로서 몸을 받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악행만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붙잡혀 들어가고 나쁘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고난과 피해를 갖가지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서 선하게 선신으로서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악한 사람 마음도 녹여서 선하게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요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 드렸지마는 이것이 우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 지금 사회, 이 한 가정 이런 데로 보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각각 보풀려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일가친척으로 돌아가고 또 내가 사회에 있으니 사회로 돌아가고 국가가 있으니 국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역시 이익지 못한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를 나쁘게 하려면 열 개를 나쁘게 해야 하나가 나빠지듯이 별일이 다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악조건에 의한 세계적인 문제, 그건 우주적으로 오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서 인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악령체가, 체가 없는 그런 악령들이 모습 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이 아니라 '있는 것' 입니다. 여기도 반은 있고 반은 없으니까요. 또 반이 있는 데서 선과 악이 있고, 우리 지금 현재의 산 생명들이 있는 데서 반은 있고 반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데서도 악령으로서 체가 없이 인간의 모습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짐승으로만 악하게 살던,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서로 이렇게 하고 악다구니들처럼 살다가 죽은 그 영과 보이지 않는 영계, 또는 그 모습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가 그 모습이 무너지면 또 영계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모습이 없는 거, 모습이 있는 거 찰나찰나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생명들이 살고 있다면 악하게만 살던 짐승의 습은 우리들 인간이라는,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도의라는, 의리라는 이러한 것을 도무지 생각조차도 못 합니다.

그러하기에 부처가 되려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9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돼 보지 않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습이 없어도 왜 사람인가 하면 사람으로 살던 습이 바로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없어도 영계를 보면 그 모습이 탁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 속에 살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찍혀 있는 것처럼 그렇기에 그러한 악조건의 악령들이, 짐승의 악령들이 어떠한 거든지 서슴지 않고 덤비는 그런 조건 위에서, 사람으로 살지 않던 짐승의 영계도, 인간의 영계를 봤을 때는 짐승의 영계는 무조건 그것을 착취한다는 얘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악조건으로 악하게 쓰니까 착취해서 무조건 갖다가 악으로 쓰이는 데에 응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또 다른 혹성에도 가서 생할 수 있고 여기 이 세상에도 생할 수 있고, 모습을 똑같이 해 가지고 나와도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건이 그리로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법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들이고 내고 하는, 이 숨 쉬고 내쉬고 하는 이 우주의 근본이, 한 우주가 숨을 들이쉬면 쑥 들어갔다가 한 번 내쉬면 쑥 나왔다가,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 형상 없는 영계의 그 모습 없는 행들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딴 혹성도 세계라고 하지요. 그 혹성 안에서는 거기를 세계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의적으로 따진다면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하죠. 그러니 그런 문제, 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 22면으로 계속



인간이 돼 보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국가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우리가 앞으로 세세생생에 돌고 돌면서 그 역경을 당해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부처님이 이러한 법을 설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 놓고, 팔만대장경을 설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들었나?" 이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 근본적으로 우주의 그 광대무변한 악조건과 선조건이 포함돼서 교차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은 상세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의 가족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세계의 여건을, 모든 거를 역력하게 눈 밝게 보고 귀 밝게 듣고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 능력의 여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악조건에도 우리는 얽히고설킨 그 뜻을 풀어 나갈 수 있으며 밀치고 뛰어넘을 수 있으며, 우리가 여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유유히 걸어갈 수 있으며, 아주 당당하게, 도도하게 바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백 청 흑 춘하추동 만 백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러한 만 백화라면 그 향기는 이 우주의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으며, 그 향기로 인해서 모든 악한 냄새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악령들의 그, 냄새 피우는 역겨운 문제들을 우리가 그 향기로써 다 소멸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문제도 세계관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 생활이 달라지고 삶의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근본인 것이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바로 우리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여건이 생김으로써 이것이 불국토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부처님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기 이전에 하늘 천, 인간 나기 이전, 미분전(未分前)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기에 부처님께서 허구장천 신도 없이 맨발로 말입니다, 그 나라는 더워서도 그랬겠지마는, 한 사람을 봐도 설해 주셨고 두 사람을 봐도 설해 주셨고 또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는 대로 보이지 않는 그 중생들을 또 제도했고, 자나 깨나 자나 깨나 제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도하신 그 부처님이 지금은 안 계신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이 방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그분도 안 계실 거지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체 만물, 저 청산이 저렇게 조화를 이루고 청청한 솔잎이 바람 불어 솔솔 날리고, 솔바람에 물은 흘러가고 흘러옴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다, 저런 깜빡새 모양 청새처럼 모두 지저귀고 꽃은 화창하고, 봄에 저렇게 날이 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그대로 진리라는 거,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절에 가면 이렇게 잘해 준다더라. 어느 절에 가면 이렇게 잘되더라."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근본적인 타개를 할 수 있는 내 깨달음의 길을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가는 그 생활이 어떤 때는 참 안되는 때도 많지요. "스님! 모든 걸 자꾸 거기다가 관하고 거기다 놓으면 잘된다더니 왜 안됩니까?" 이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안되는 것도 놓는 것이지마는 되는 것도 놓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이란 되는 것도 놓고 안되는 것도 놓는 것인데, 가을에 단풍을 모두 바숴 버리면 봄에 꽃 피는 것을 다 바숴 버립니다. 그래서 가을 단풍을 위해서 봄을 깨뜨리고 봄을 위해서 가을 단풍을 깨뜨릴 때 바로 거기에서는 꽃이 스러지면 열매가 맺고, 맺은 그 열매는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니 우리의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할 것을 무엇이 답답해서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의 열매란 남이 익혀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열리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맛을 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히만 믿는다면, 진실히 물러서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모두가, 전체가, 일체 만물이 공했다는 그 자체를 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서 광명이 오고, 스스로서 마음이 맑아지고, 스스로서 조용해지고, 스스로서 객담할 말이 없고, 스스로서 망상 일으킬 이치가 없고, 스스로서 가난이 들 리가 없고, 스스로서 우환이 끓을 리가 없습니다. 모두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환이 있고, 만들어서 복잡하고, 만들어서 싸우고, 만들어서 엇각이 나고, 엇각이 나 가지고 이혼들을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랬나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대로 해 놓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자1(남)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계율에 대해서 중요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스님께선 계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법문 중에서 조금씩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계율과 깨달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계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계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자기가 상식과 교양, 교육을 다 받고 잘못된 거, 잘된 거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근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말은 안 해도 좋지만 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회의 계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려들이 사는 도량에는, 여러분이 사는 데나 우리 승려들이 사는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량' 하면 전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절 도량에서 사는 승려들은 승려들대로 계율이 있고 그렇지마는 그 계율을 무시하고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계율도 거기에 근본적으로 바탕스가 맞아야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근본적으로 상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절에 들어가면 절의 계율을 지켜야 하고, 들에 나가면 들에 나가는 대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계율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절간에서는 시켜서 하는 군대식 같은 그러한 계율이죠.

사회에서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면 거기는 계율이 없습니까? 모든 게 계율은 제가끔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계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율을 지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를 피해서 보도로 간다. 차 속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까 봐 안 들어가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돼 있죠? 차가 오는데도 무조건 내가 차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차를 피해서 내가 또 갑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근본적인.

집안에서도 그럽니다. 아, 더러운 것은 좀 더 훔치고 깨끗하게 씻고 다듬어 놓는 것도 계율이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는 것이 계율에 의해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행한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돈을 천만 원을 주고 오늘 강도질을 한 번 하라고 그래도 못 해요.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기 이전에,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계율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계율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것을 계율에다가 딱 얽매어 놓는다면, 이북의 저 김일성처럼 딱 묶어 놓는다면 이건 독재! 자유 계율이 아니라 독재!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율 속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강제 계율 속에서는.

> 식탐을 갖지 말라 하는 것도
>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려면 외롭고 고독하고 배고프고
> 얻다 기댈 데도 없을 때에 자기의 생명수가 홀연히 나서 맛을 보는 거지
> 배부르고 호화롭고 안락하고 마음이 이래서는
> 일심으로 그 철벽을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신 행원 스님이 중국으로 순례를 하시는데도 거기 선맥이 끊어진 듯해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 계율이란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자유스러워야지, 노동을 하면서도 죽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자유스러워야 공부가 되는 거지 강제 계율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그리고 어저께 '식탐을 갖지 마시라' 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외로워야 하고 고독해야 하고 배고파야 하고 얻다 기댈 데도 없을 때에 우리는 자기의 생명수가 홀연히 나서 맛을 보는 거지, 배부르고 호화롭고 안락하고 마음이 이래서는 일심으로 그 철벽을 뚫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있어도 자기 게 아니고, 먹을 게 많아도 자기 게 아니고, 호화로워도 자기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일체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 언짢아할 것도 없고 또 슬퍼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이 항상 마음을 중도에다 두고 중심을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율 이 자체가 말입니다, 계율이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몇 시까지 공양을 끝내고, 또는 아침에 몇 시에서부터 예불을 올리면 그다음에 법당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또는 몇 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좌선하고 앉아 있는 거, 참선한다 이런 계율, 또는 오늘은 오늘의 소임을 맡은 사람들의 짜임새가 똑똑 떨어지게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이름해서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려라면 그렇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으레 계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 씻고 여자는 밥한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뭣을 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몇 시간이면 벌써 어디까지 간다. 회사에 나간다. 장사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것도 역시 그것도 이름 붙이다 보면 계율이죠. 그러고 나가서도 올바로 해야만 그게 계율이죠. 우리가 올바로 못 하는데 어떻게 계율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화돼 있단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시간을 요렇게 요렇게, 요땐 요거를 하고 요때는 요거를 하고 요땐 요거를 하고, 요렇게 짜 놓는 거를 계율이라고 이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입산한 분들도 아닌데 계율 뭐, 이런 거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계율을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아마 철두철명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참선이니까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똥도 옆으로 누면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고, 똑바로 누면 쏙 똥이 들어가니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무슨 계율을 지키랬으니까 난 똥을 올바로 눠야겠다.' 이럽니까? 똥 눌 때도 그냥 저절로 '아, 한데다 누면 안 되지. 삐뚤어지면 저기 묻으니까.' 그리고 '가래침을 뱉으면 이거 모두 더러우니까.' 이렇게 스스로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교양이나 교육이나 또는 상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나가는데, 그래서 인간 자체가 첨단을 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벌써 그 재력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앉아서 이 우주를 그냥 굴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굴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계율 따위 그런 것은 거기에 포함해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1월 29일 일반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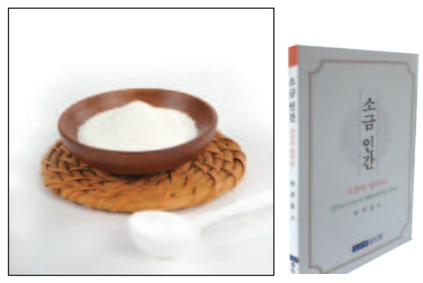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현불논단

상월결사 3주년에 부쳐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부처님 생애서 나무는 중요한 상징
출생, 정각, 열반 모두 나무와 연결
나무, 하늘과 땅 잇는 연기적 존재
길 역시 이곳과 저곳 이어 만들어져

2019년 11월 1일 상월결사 시작돼
나무처럼 수미산-사바세계를 이어
안주하지 않고 길 만들어 걸어갔다
상월결사의 내일이 한국불교 미래

마음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니카자와 신이치는 〈예술인류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현생인류보다 크지만 뇌의 구조가 지식 영역을 따로 관장하기 때문에 지식이 서로 유동하지 못했다. 현생인류는 뇌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그 비법은 지식 영역을 상호 교류시키는 데 있었다. 그 결과 뇌 속의 뉴런 신경 세포체가 발달하고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진화가 일어나면서 창조적 지식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상상력이 마음을 탄생시켰다고 그는 주장한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지, 분석, 추론, 적용, 종합, 평가 등의 행위를 유도하고 예술과 종교의 발명을 이끈다. 이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잇기-연결'이다.

개체로서의 인간은 유전적 선조의 계통발생을 반복하고 있으며 다른 사물들과도 연계돼 있다. 수행자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이루어 붓다가 됐을 때 성찰해 보니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름 하여 연기법(緣起法)이다. 연기법은 고도의 형이상학이어서 보통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붓다의 연기론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은 경험적 사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이미지는 나무와 길이다.

붓다의 생애에서 나무는 중요한 상징이다. 붓다는 아쇼까 나무(무우수) 아래서 태어나고 뻡빨라 나무(보리수) 아래서 깨달았으며 샬라 나무(사라수) 아래서 입멸한다. 나무의 생태적 본질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다. 하늘의 빛과 땅의 물을 결합시켜 산소를 공급하고 그늘을 만들어 더위에 지친 이들을 쉬게 한다. 생명의 보살행이다.

길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의 속성을 인간의 유전적 특성으로 되바꾼 것이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 공간을 이동하면서 살아야 한다. 수직으로 선 나무와 같은 모양인데 인간은 나무와는 달리 수평운동을 한다. 수평운동의 지속적 반복의 결과가 길이다. 길은 지표면의 이곳과 저곳을 이어준다. 잇는다는 점에서 나무와 길은 연기법의 경험적 예증이다.

우리가 왜 나무와 숲을 사랑해야 하며, 열심히 걸어서 이웃과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지는 연기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나무와 길은 연기의 법칙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고 지각을 통해 깨우쳐준다. 나와 너를 잇는 것. 전통과 현대를 잇고, 번뇌와 열반을 잇는 것. 그리하여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붓다정신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상월결사 3주년이 다가왔다. 2019년 11월 11일, 도심 한복판 아파트 공사현장에 비닐 천막을 치고 아홉 스님이 3개월간 용맹정진을 했다.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전통을 파괴한 새로운 수행양식이었다. 수미산이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 한복판이라는 선언이었다. 나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처럼 수미산과 사바세계를 이었다. 그러고는 길을 걸었다. 붓다가 45년간 전법한 방식을 병마에 신음하는 '지금 여기'에 도입했다. 안주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 걸었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했다. 화려한 말잔치 대신 묵언설법을 택했다.

오늘의 한국불교가 박물관 속 문화유산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대정신과 이어져야 하고 국민 눈높이와 마주해야 한다. 현장성과 실제성이 몰각되는 불교는 박제불교일 뿐이다.

상월결사의 내일이 곧 한국불교의 미래이다. 11월 11일. 1자 네 개가 모이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합장하는 모양새다. 나하고 너부터 이어보자. 불교계 내부는 물론 정치인들부터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한라산 베이스캠프, 존자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는 변방이었다. 그러나 한라산은 성스럽게 여겨졌다. 그래서 제주에 오는 관료와 양반들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 기도를 올리고 시문을 한 곡이라도 남기고 싶어 했다. 그 베이스캠프가 존자암이다.

"이 산이 멀리 2000리 아득한 바다 밖에 있으므로 실로 평생 꿈에서도 오지 못하는 곳이오, 오늘 우리의 유람이 어찌 운수소관이 아니겠소?" 판관 김치가 〈유한라산기〉에서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 존자암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밝힌 소회이다.

그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주 성을 나섰다. '뱀과 같이 요리조리 구부러진 평평한 들과 물길을 따라 바위 사이에 핀 향기로운 풀과 철쭉과 진달래가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말을 타고 노루악을 넘어 삼장동과 포애악을 넘었다. 이리저리 돌면서 남쪽으로 한 정사(精舍)에 도착하였다. 연하 속 푸른 바다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곳에 존자암이 있었다. 판자집 8~9칸이 띠로 덮여 있었고 사치스럽지도 더럽지도 않았다. 한 스님이 문밖에 나와 절을 하고 절집으로 맞아들였다. 그 이름을 물으니 수정(修淨)이라 했다.'

그보다 앞서 김상현은 〈남사록〉에서 '영실은 500나한도량 또는 천불봉이라 한다. 존자암은 지붕과 벽이 흙과 기와가 아닌 판잣집이며 9칸 집이다. 존자암 근처에는 20여 명이 들어갈 만한 수행굴이 있다'고 기록했다. 이영태의 〈지영록〉과 이원진의 〈탐라지〉에도 '존자암은 원래 10리 거리의 영실에 있었으나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존자암이 있던 폐사지에는 계단과 초석이 아직도 완연하게 남아 있다'는 글이 있다.

이상과 같은 기록들은 제주의 설화와 함께 어우러져 존자암과 영실의 이야기를 풍성하고 신비롭게 한다. 제주의 향토사학자들은 한반도의 불교문화가 이곳 영실의 존자암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위의 기록들과 〈고려대장경〉 제30권 '법주기'에 '부처님의 16제자 가운데 여섯 번째 발타라존자가 탐몰라주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결합한다.

거기에 가야불교 전래설과 아쇼카왕이 인도를 통일한 후 빠탈리뿌따에서 '일천결집(一千結集)' 후 인도 변경과 다른 나라에 전도단을 파견하였다는 비문의 기록과 연결져 이해하려고 한다. 탐몰라주는 탐라이고 존자암이 당시 파견된 존자가 창건한 사찰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스리랑카와 태국, 미얀마에서도 전해지는데,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외도들을 교화하기 위해 천불로 화현하신 후 도리천에 가서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시고 상카시아로 하강하신다는 설화와 연결져 자신들의 나라에도 화현했다고 주장한다.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도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신라 경주의 백률사로 하강하신 불족(佛足)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자신들의 땅에 나투어 정토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제주 탐라인들도 그 마음으로 '영실(영축산의 여래향실)', '천불동(千佛洞)', 제자들의 수행처 '수행동(修行洞)' 또는 '오백나한도량', 부처님이 오신 길 '불래(佛來)오름', 수행자들이 탁발할 때 사용하는 발우를 의미하는 '바리메오름' 등이라고 불렀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불교, '이태원 참사' 치유 나서야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 29일 있어서는 안될 비극이 벌어졌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죽고, 173명이 다쳤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청천벽력같은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불교계의 애도 행렬도 이어졌다.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은 애도문을 발표했고, 조계사에는 분향소가 설치됐다.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할 것도 지시했다.

참사 현장과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스님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0월 31일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기도회를 봉행했고, 11월 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스님들도 11월 3일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조계종은 11월 4일 조계사에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영가를 추모하는 위령법회를 종단 차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애도 물결은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안전 사회에 대한 기원이 담겼다.

앞으로 불교계는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 따르면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모든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감로수 같은 안심법문이 필요하다. 이것이 추모와 함께 불교계가 해야 할 과제이다.

서른살, 경찰청 불교회에 거는 기대

경찰청 불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경찰청 본청 불자직원들의 모임인 불교회가 매주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개개인의 마음을 보듬어 온 세월이 어느새 30년을 맞은 셈이다.

경찰청 불교회는 공식창립 전부터 뜻있는 불자들 십수명이 모여 동호회 형태의 신행모임으로 운영돼 왔는데, 바로 '치안본부 연꽃모임'이다. 이웃종교에 비해 늦게나마 경승실이 생겼지만 이렇다할 모임은 없었던 상황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개개인의 원력이 모여 불교회가 탄생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 셈이다.

지하에 마련된 초창기 법당은 부처님 사진이 곧 불상이었다. 그럼에도 신심만은 드높았다. 매주 퇴근시간 이후 법당에 모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공부를 했다. 산악회와 합창단, 서예 등 소모임도 활성화됐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인 산악회는 주말이면 산세 좋은 사찰을 찾아 성지순례를 하는 등 취미와 신행을 접목한 활동으로 인기를 끌었다.

200~300명이 북적이던 경찰청 불교회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젊은 세대 유입이 적어졌고 조금씩 회원수도 줄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신심만큼은 여전히 성성하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할애해 법당에 모이는 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직장생활 속 작은 활력을 찾고 마음을 다스린다. 불교회가 과거처럼 번성하지 않더라도 지속되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굳건한 이유다. 직장직능 신행모임의 장점은 일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새로운 이들과 불연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업무에 지칠 땐 잠시 쉬어갈 의지처가 된다. 경찰청 불교회의 30주년이 지난 세월을 딛고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마음돌봄 치유 "늘봄" 사업

늘봄 : 늘 바라보고 늘 돌보면 마음은 늘 봄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산하 불교상담심리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마음돌봄 치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2022년 마음돌봄 치유사업 "늘봄"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우울감이 심화된 전 국민의 마음치유 필요
○ 명상과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의료, 복지, 돌봄, 재난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직군 및 사회취약, 소외계층의 마음돌봄, 나아가 자살예방에 기여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
○ 사업내용 : "늘봄" 명상프로그램
– 불교계 전문 분야인 명상을 활용하여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운영
마음돌봄이 필요한 곳에 불교명상지도사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해소
○ 사업대상 : 전국의 복지, 돌봄, 의료, 재난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 직군 및 사회취약, 소외계층, 정서적 취약계층(자살유가족) 포함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총 4회기 프로그램

회 기	프로그램명	제 목	목 표
1회기	참여하기	지금멈춤	멈추고 참여하기
2회기	깨어있기	온몸관찰	자각과 수용으로 깨어나기
3회기	나눔하기	돌봄나눔	돌봄으로 나눔하기
4회기	무르익기	성장확인	성장으로 무르익기

참여기관 모집 전화문의

문 의 본원 사무국 **02-737-7378** (jabi7378@naver.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